문학 개념 이해·적용 07

소설의 인물과 사건·갈등

대치동 재우쌤

인물의 말과 행동에서 마음을 읽고, 선택과 대립이 사건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근거로 판단합니다.

이 자료의 설명·예문·지문·문항은 학습을 위해 새로 작성했습니다. 종합 적용의 네 이야기도 개념 적용을 위한 창작 지문이며 실제 작품의 발췌문이 아닙니다.

이 자료의 구성

- **설명 카드 22개** · 4묶음(인물의 유형 / 말과 행동에서 인물 읽기 / 사건과 갈등의 종류 / 갈등의 변화와 사건의 연결)
- **개념 적용** 40문항 · **짧게 쓰기** 4문항
- **종합 적용** 16문항 · 학습용 창작 지문 4편
- **정답과 해설** · 모든 선지의 판단 근거

© 대치동 재우쌤 | 010-9524-4849 | https://leessaem.com/ | https://blog.naver.com/leessaem84
본 자료는 직접 제작한 학습 자료입니다. 개인 학습을 위한 열람·인쇄는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무단 복제·재배포·수정 후 재배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차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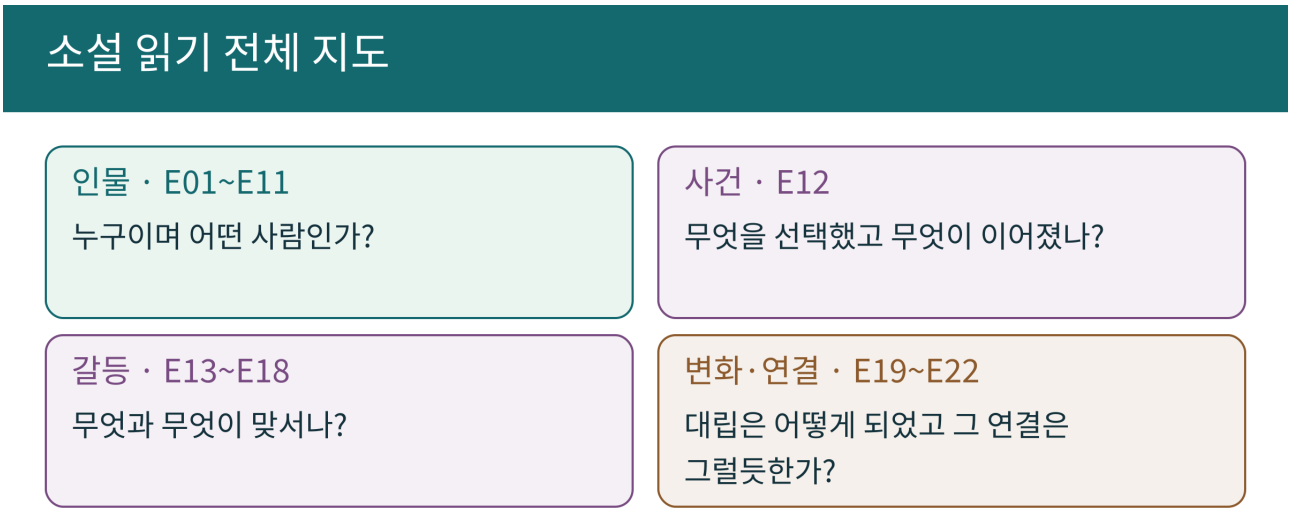
묶음	확인할 질문
1 소설과 인물의 유형	E01 소설은 꾸며 낸 이야기인데 무엇을 읽나요? E02 한 인물에게 여러 유형을 붙여도 되나요? E03 중심인물과 주동 인물은 같은 뜻인가요? E04 주동 인물은 선하고 반동 인물은 악한가요? E05 전형적 인물과 개성적 인물은 함께 성립하나요? E06 기분이 달라지면 입체적 인물인가요?
2 말과 행동에서 인물 읽기	E07 성격·심리·태도는 어떻게 나누나요? E08 직접 제시는 무엇을 직접 알려 주나요? E09 간접 제시는 어떤 근거로 마음을 짐작하게 하나요? E10 말과 행동이 다르면 어느 쪽을 보나요? E11 이름이 없거나 특이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3 사건과 갈등의 종류	E12 사건이 이어졌다는 말과 원인·결과는 같나요? E13 힘든 일이 나오면 모두 갈등인가요? E14 걱정이 있으면 모두 내적 갈등인가요? E15 인물과 인물의 갈등은 성격이 다르면 생기나요? E16 제도에 맞서는데 앞에 사람이 있으면 어떤 갈등인가요? E17 자연과 운명의 갈등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E18 한 사건에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이 함께 있나요?
4 갈등의 변화와 사건의 연결	E19 갈등이 심해졌다는 것은 무엇이 달라졌다는 뜻인가요? E20 다툼이 멈추면 갈등이 해소된 건가요? E21 긴장이 풀리면 갈등도 끝난 건가요? E22 그럴듯함·반드시 일어남·우연은 어떻게 다른가요?

소설 읽기 전체 지도 · 개념 적용 Q01~Q40 · 짧게 쓰기 Q41~Q44 · 판단 근거 총정리 · 종합 적용 Q45~Q60 · 빠른 정답 · 정답과 해설

앞선 편 개념 다시 보기

개념	이번 편의 판단
정서·태도	마음의 상태와 상황에 대응하는 자세를 나눕니다.
대조	인물의 말·행동과 사건 전후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근거에 따른 해석	제시된 사실과 추론을 나누고 한 장면을 작품 전체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화자·작가의 구별	소설에서도 이야기를 전하는 서술자와 실제 작가를 구별합니다.

소설 읽기 전체 지도



묶음 1 소설과 인물의 유형

인물	사건	갈등	변화·연결
E01~E11	E12	E13~E18	E19~E22

E01 소설은 꾸며 낸 이야기인데 무엇을 읽나요?

> **한 줄 답** — 상상으로 구성한 인물과 사건을 통해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과 의미를 읽습니다.

소설의 **허구성**은 인물과 사건을 상상하여 구성하는 성격입니다. 실제 경험이나 역사에서 출발할 수도 있지만, 작품 속 인물이 실제 작가와 같고 모든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전제하지 않습니다.

예: 작가는 이웃 가게가 문을 닫은 경험을 바탕으로, 존재하지 않는 제과점 주인과 손님을 만들어 이야기를 썼습니다. 가게와 인물은 허구여도 이별의 아쉬움이나 일터를 잃는 사람의 어려움은 삶을 이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작품을 읽으며 확인할 것	자동으로 단정하지 않을 것
어떤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는가	실제 작가도 같은 행동을 했다는 것
인물의 말과 행동이 무엇을 드러내는가	인물의 주장이 곧 작가의 주장이라는 것
작품 안에서 사건이 어떻게 설명되는가	현실에 없으므로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것

이야기를 전하는 목소리를 **서술자**라고 합니다. 작품을 실제로 쓴 **작가**와 구별합니다. 서술자가 말하는 위치와 아는 범위는 뒤의 시점 단원에서 자세히 살핍니다.

허구로 만든 사건이라도 작품이 제시한 조건 안에서 **일어날 법한가(개연성)**를 살필 수 있습니다. E22에서 개연성·필연성·우연성을 비교합니다.

비유로 이해하기

연극에서 역할을 맡은 사람이 실제 생활에서도 그 역할과 똑같은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소설 속 목소리도 실제 작가와 나누어 생각해 봅시다.

비유의 한계: 소설이 모두 연극처럼 공연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사람과 작품 속 존재를 구별하는 데만 쓰는 비유입니다.

❌ **흔한 착각**: 허구이므로 현실의 삶과 연결할 수 없다.

✅ **바로잡기**: 꾸며 낸 인물과 사건도 삶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확인 질문: 작품 안의 사실과 실제 작가에 관한 사실을 나누었나요?

연결 문항: Q01 · Q02 · Q56

E02 한 인물에게 여러 유형을 붙여도 되나요?

한 줄 답 — 역할·대표성·성격 변화·가치 평가처럼 분류 기준이 다르면 여러 유형이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인물 분류의 다섯 기준

기준	비교할 유형	판별 질문
1 비중	중심·주요 인물 / 주변·보조 인물	누구의 선택과 결과가 이야기의 중심인가?
2 목표의 역할	주동 인물 / 반동 인물	누가 목표를 이끌고 누가 맞서는가?
3 대표성·고유성	전형적 인물 / 개성적 인물	집단 공통 특징과 개인의 독특함이 드러나는가?
4 성격 변화	평면적 인물 / 입체적 인물	가치관·지속적 행동이 전후에 달라지는가?
5 가치 평가	긍정적 인물 / 부정적 인물	작품이 어떤 행동을 긍정하거나 비판하는가?

전형성과 개성은 함께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근거가 없는 분류를 억지로 채우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기준으로 나눈 인물 유형은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 이야기의 중심인 제빵사가 부당한 주문을 거부하며 끝까지 정직을 지킵니다. 중심인물이면서 평면적 인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보만으로 특정 시대나 계층을 대표하는 전형적 인물이라고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분류표의 빈칸을 억지로 모두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발췌문에 변화의 전후가 없으면 작품 전체에서 평면적인지 입체적인지 판단을 미룰 수 있습니다.

비유로 이해하기

한 학생이 '도서부원'이면서 '오른손잡이'일 수 있듯, 기준이 다른 분류는 동시에 붙을 수 있습니다.

비유의 한계: 인물의 유형은 명단만 보고 정하지 않습니다. 작품에 드러난 역할과 행동을 근거로 삼아야 합니다.

❌ **흔한 착각**: 중심인물이라고 정했으면 다른 유형으로는 분류할 수 없다.

✅ **바로잡기**: 서로 다른 분류 기준을 따로 적용합니다.

확인 질문: 지금 붙인 두 이름은 같은 기준으로 나눈 것인가요?

연결 문항: Q03 · Q04 · Q13

E03 중심인물과 주동 인물은 같은 뜻인가요?

다섯 기준 판의 1·2행 — 사건의 비중 / 목표를 둘러싼 역할

> **한 줄 답** — 중심인물은 사건에서의 비중을, 주동 인물은 목표를 향해 사건을 이끄는 역할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중심인물·주요 인물은 사건과 갈등의 중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변 인물·보조 인물**은 중심인물을 돕거나 두드러지게 하며 사건 진행에 관여합니다. 등장 횟수가 적어도 결정적 정보를 줄 수 있습니다.

주동 인물은 주요 사건을 이끌며 목표를 이루려 합니다. **반동 인물**은 주동 인물과 대립하며 목표 실현을 막거나 갈등을 일으킵니다. 두 인물의 관계는 '무슨 목표를 둘러싼 대립인가'와 함께 읽습니다.

예: 재희가 오래된 다리를 보존하려 서명을 모으고, 소장이 철거 일정을 앞당겨 이를 막습니다. 재희의 보존 활동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이어진다면 재희는 중심인물이자 주동 인물이고, 소장은 그 목표에 맞서는 반동 인물입니다. 다리의 기록을 찾아 준 이웃은 주변 인물이어도 사건에 큰 도움을 줍니다.

이 용어들은 자주 겹치지만 판단 질문이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특히 '먼저 말한 사람', '이름이 먼저 나온 사람'으로 역할을 정하지 않습니다.

비유로 이해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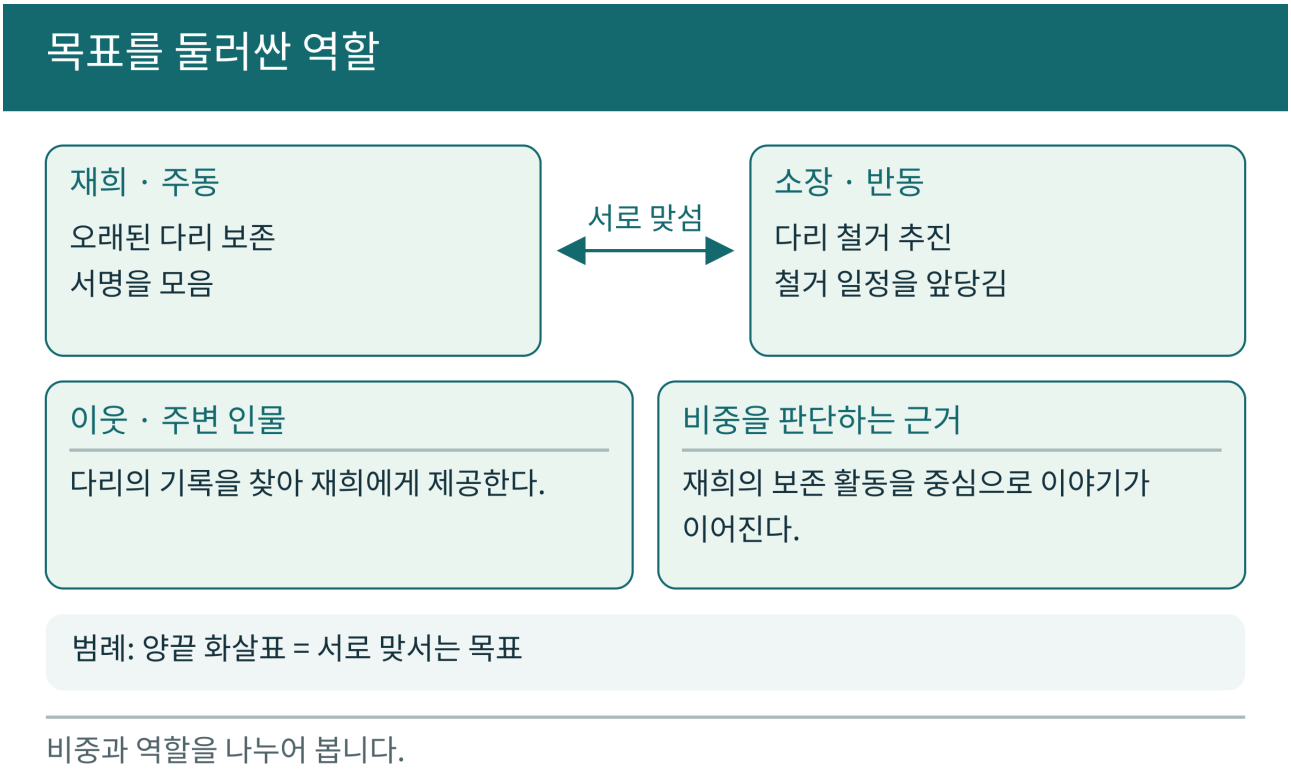
경기의 중심에서 공을 이끄는 선수와 그 움직임을 막는 선수를 떠올리면 목표를 둘러싼 관계가 보입니다.

비유의 한계: 문학의 대립은 경기 규칙처럼 미리 고정되지 않으며, 승자나 선악도 역할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흔한 착각**: 주변 인물은 사건에 아무 영향도 주지 않는다.

✅ **바로잡기**: 비중이 작아도 단서 제공이나 선택의 계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확인 질문: 이 인물은 누구의 어떤 목표를 돕거나 막나요?



비중과 역할을 나누어 봅니다.

연결 문항: Q05 · Q06 · Q45

E04 주동 인물은 선하고 반동 인물은 악한가요?

다섯 기준 판의 2·5행 — 목표의 역할 / 작품의 가치 평가

한 줄 답 — 주동·반동은 사건의 역할이고, 긍정·부정은 작품이 드러내는 가치에 따른 평가입니다.

예: 상인이 물을 독점해 비싸게 팔려고 우물을 막습니다. 마을 사람이 우물 문을 열어 계획을 막습니다. 상인의 독점 계획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된다면 상인은 주동 역할, 마을 사람은 반동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상인의 행동이 도덕적으로 옳아지지는 않습니다.

질문	판단 대상
누가 목표를 향해 사건을 이끄는가?	주동 역할
누가 그 목표의 실현을 막는가?	반동 역할
작품은 누구의 어떤 행동을 비판하거나 긍정하는가?	긍정적·부정적 평가

작품의 평가는 서술자의 설명, 행동의 결과, 다른 인물의 반응 등으로 확인합니다. 독자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인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작품이 긍정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한 인물에게 긍정적 면과 비판받는 면이 함께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비유로 이해하기

반장이라는 역할을 맡았다고 그 학생의 행동이 늘 옳은 것은 아닙니다. 반장의 계획에 반대하는 학생도 그 이유를 들어 보아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비유의 한계: 이 비유는 역할과 평가를 구별하는 데까지만 맞습니다. 소설의 주동·반동은 투표나 직책이 아니라 사건 속 목표와 대립으로 정해집니다.

- **흔한 착각**: 주인공의 계획을 막는 사람은 무조건 부정적 인물이다.
- **바로잡기**: 그 계획의 내용과 작품의 평가를 따로 확인합니다.

확인 질문: 역할에 관한 근거와 가치 평가의 근거를 각각 찾았나요?

역할과 가치 평가는 다른 기준

판단 기준	상인	마을 사람들
목표·행동	물 독점 계획을 추진함	독점 계획의 실행을 막음
사건에서의 역할	주동 역할	반동 역할
작품의 가치 평가	독점 행동이 비판받음	공동체의 물 확보에 기여함

사건을 이끄는 역할이 행동의 정당함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연결 문항: Q07 · Q08 · Q45

E05 전형적 인물과 개성적 인물은 함께 성립하나요?

다섯 기준 판의 3행 — 대표성과 고유성

> **한 줄 답** — 집단의 공통 특징을 대표하면서 개인의 독특한 성격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전형적 인물은 특정 계층·집단·시대의 공통적인 특징을 대표합니다. 여러 번 등장하거나 흔한 이름을 가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개성적 인물**은 다른 인물과 구별되는 고유한 성격이 두드러집니다.

예: 작품은 공장주의 이익 때문에 노동자들이 쉬지 못하던 시대를 보여 줍니다. 그 공장주는 노동자를 숫자로만 세면서도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혼자 낡은 자장가를 흥얼거립니다. 착취(일한 만큼 주지 않고 빼앗아 감)를 일삼는 경영 방식은 집단의 특징을 대표할 수 있고, 반복되어 인물을 두드러지게 하는 습관은 개인의 고유성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특이한 모자를 한 번 썼다는 사실만으로 성격의 개성이 충분히 드러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외양이나 행동이 인물을 어떻게 특징짓는지까지 읽습니다.

비유로 이해하기

교복은 같은 학교 학생이라는 공통점을 보여 주고, 가방에 단 나만의 키링은 다른 학생과 구별되는 특징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비유의 한계: 이 비유는 공통점과 고유성이 함께 있다는 데까지만 맞습니다. 전형성은 옷차림 자체가 아니라 집단의 생각과 행동 방식을 대표하는 데서 판단합니다.

✕ **흔한 착각**: 개성적이면 어떤 집단도 대표할 수 없다.

✓ **바로잡기**: 대표하는 공통 특징과 개인의 고유성이 함께 있는지 살핍니다.

확인 질문: 어떤 집단의 무엇을 대표하며, 개인만의 어떤 특징이 두드러지나요?

대표성과 고유성의 공존

같은 공장주에게 나타나는 두 모습

집단의 공통 특징	인물의 고유한 버릇
노동자를 숫자로만 세는 경영 방식 집단의 특징을 대표할 수 있음	중요한 결정 때 혼자 낡은 자장가를 흥얼거림 개인의 고유성을 드러낼 수 있음

두 설명은 같은 인물에게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같은 인물에게 대표성과 고유성이 함께 드러날 수 있습니다.

연결 문항: Q09 · Q10

E06 기분이 달라지면 입체적 인물인가요?

다섯 기준 판의 4행 — 핵심 성격의 변화

> **한 줄 답** — 일시적인 감정 변화와 핵심 성격·가치관의 변화를 구별해야 합니다.

평면적 인물은 사건이 진행되어도 핵심 성격이 크게 변하지 않는 인물입니다. **입체적 인물**은 사건과 경험을 거치며 성격이나 가치관이 변화하는 인물입니다. 서로 다른 감정을 여러 번 느꼈다는 사실만으로 성격 변화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후 비교	판단
시험 전에는 불안하고 결과를 안 뒤에는 기뻐한다	상황에 따른 심리 변화만 확인됨
손해를 보아도 남을 돕던 인물이 마지막에도 같은 선택을 한다	핵심 성격 유지의 근거

전후 비교	판단
성적만 중시하던 인물이 경험 뒤 협력을 더 중시하며 여러 상황에서 실천한다	가치관·행동 방식 변화의 근거

예: 늘 책임을 피하던 수아가 자기 잘못 때문에 친구가 곤란해진 일을 겪고, 이후 실수를 먼저 알리고 수습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건 전의 성향, 변화의 계기, 그 뒤의 지속적인 선택이 연결됩니다.

‘평면적 구성(순행적 구성)’은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서술하는 구성에 관한 말입니다. ‘평면적 인물’과는 판단 대상이 다릅니다.

비유로 이해하기

날씨가 하루 동안 바뀌는 것과 한 지역의 오랜 기후 특징이 달라지는 것은 다른 비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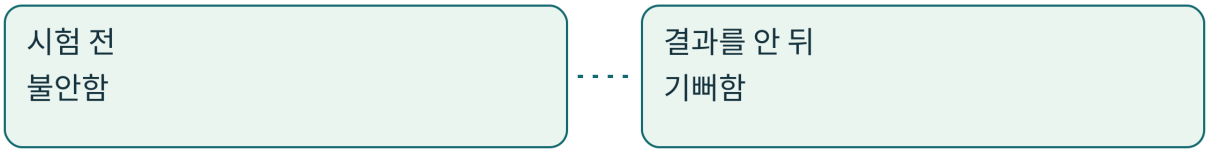
비유의 한계: 감정과 성격이 날씨·기후에 정확히 대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학에서 성격 변화에 필요한 기간을 숫자로 정할 수도 없습니다.

- **흔한 착각**: 울다가 웃으면 입체적 인물이다.
- **바로잡기**: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변화했는지 확인합니다.

확인 질문: 변화 전·계기·변화 뒤를 각각 어느 문장에서 확인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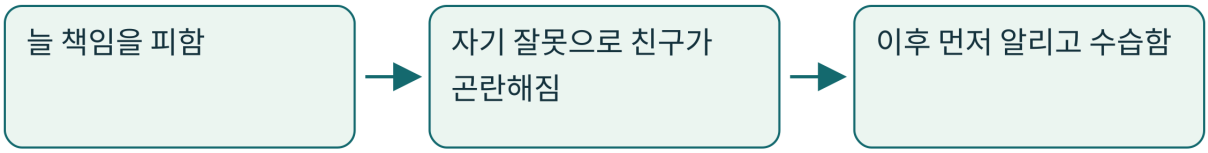
감정 변화와 성격 변화

지금의 마음 변화



… 시간상 뒤: 마음이 바뀌었다는 사실만 확인

계기를 거쳐 지속적인 행동이 달라짐



사건의 경험이 이후 태도·행동 변화의 계기가 됨

범례: … 시간상 뒤 / → 계기가 변화를 이끎

지금의 마음 변화와 핵심 성격의 변화를 구별합니다.

연결 문항: Q03 · Q04 · Q10 · Q11 · Q12 · Q13 · Q50 · Q59 · Q60

묶음 2 말과 행동에서 인물 읽기

인물	사건	갈등	변화·연결
E01~E11	E12	E13~E18	E19~E22

E07 성격·심리·태도는 어떻게 나누나요?

한 줄 답 — 지속적인 특성, 지금의 마음 상태, 상황을 대하는 자세를 구별합니다.

성격·심리·태도

구분	판단의 초점	이해를 돕는 비유
성격	지속적인 특성	한 지역의 기후
심리	지금의 마음 상태	오늘의 날씨
태도	상황에 대응하는 자세	그 날씨에 대처하는 모습

서진의 심리

발표 직전 손이 떨림
긴장·불안의 단서

서진의 태도

친구의 몫까지 설명하려 단상에 나섬
적극적인 대응의 단서

불안해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비유의 범위: 지속성·현재 상태·대응을 나누는 데까지만 적용합니다.

예: 서진은 발표 직전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도 친구가 빠뜨린 부분까지 설명하겠다며 단상에 올랐습니다. 손떨림은 긴장한 심리의 단서이고, 역할을 맡아 나서는 행동은 적극적인 태도의 단서입니다. 한 장면만으로 '평생 용감한 성격'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근거보다 큰 판단입니다.

불안한 심리와 적극적인 태도는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서 행동한 것인지, 두렵지만 행동한 것인지를 구별합니다.

비유로 이해하기

성격은 한 지역의 기후, 심리는 오늘의 날씨, 태도는 그 날씨에 대처하는 모습에 빗대어 볼 수 있습니다. 비가 오는 같은 날에도 우산을 쓰고 나설 수 있고 집 안에 머물 수 있습니다.

비유의 한계: 이 비유는 지속적인 특성·지금 상태·대응을 나누어 보는 데까지만 맞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날씨처럼 저절로 바뀌는 것만은 아니고, 한 행동의 이유도 문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흔한 착각**: 두려워하므로 반드시 소극적인 태도이다.
- **바로잡기**: 느끼는 마음과 실제 대응을 나누어 읽습니다.

확인 질문: 마음의 상태와 행동의 방향을 각각 표현했나요?

연결 문항: Q12 · Q14 · Q15 · Q16 · Q50 · Q56 · Q59

E08 직접 제시는 무엇을 직접 알려 주나요?

> **한 줄 답** — 서술자가 인물의 성격이나 심리를 직접 설명해 줍니다.

예: “서진은 다른 사람을 먼저 챙기는 사람이었다.” 서술자가 서진의 지속적인 특성에 이름을 붙여 설명합니다. 다음 카드에서는 같은 인물의 배려를 행동으로 보여 줍니다. “서진은 친구가 떠날까 두려웠다.”도 마음 상태를 직접 알려 줍니다.

직접 제시는 **말하기**, **분석적·요약적 제시**라고도 합니다. 이때 ‘말하기’는 인물이 대사를 말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요약적’도 여기서는 성격·심리를 정리해 설명한다는 뜻이지, 사건의 긴 시간을 압축했다는 뜻으로만 읽지 않습니다.

문장	판단 이유
그는 쉽게 포기하지 않는 성격이었다	성격을 직접 설명함
그는 실패한 장치를 다시 분해했다	행동으로 성격을 짐작하게 함

직접 설명 한 문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작품 전체의 시점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전달 방법과 서술자의 위치·정보 범위는 별도 문제입니다.

비유로 이해하기

새 친구를 소개하며 "이 친구는 다른 사람을 잘 챙겨."라고 특성을 말해 주는 모습입니다. 다음 카드에서는 그 특성이 드러나는 행동을 보여 줍니다.

비유의 한계: 이 비유는 특성을 말로 알려 주는 방식까지만 맞습니다. 소개하는 말이 언제나 정확한 것은 아니므로 실제 상황과 함께 확인합니다.

✕ **흔한 착각**: 인물이 직접 말했으므로 직접 제시이다.

✓ **바로잡기**: 서술자가 성격·심리를 설명했는지를 확인합니다.

확인 질문: 설명되는 성격·심리에 해당하는 말이 문장에 직접 있나요?

직접 설명과 간접 단서

직접 설명 · 알려 주기	간접 단서 · 보여 주기
"서진은 다른 사람을 먼저 챙기는 사람이었다." 서술자가 특성을 이름 붙여 설명함	서진은 마지막 빵을 나누어 동생의 접시에 놓았다. 행동에서 배려를 짐작함

두 방식은 함께 쓰일 수 있습니다. 따옴표의 유무로 구별하지 않습니다.

같은 배려를 말로 설명하거나 행동으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연결 문항: Q17 · Q18 · Q22 · Q60

E09 간접 제시는 어떤 근거로 마음을 짐작하게 하나요?

한 줄 답 — 말·행동·외양·주변 반응을 제시하고 독자가 인물의 성격이나 심리를 짐작하게 합니다.

예: "서진은 자기 접시의 마지막 빵을 반으로 갈라 말없이 동생의 접시에 놓았다." '배려심이 깊다'고 이름 붙이지 않아도 행동을 통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드러난 단서	짐작할 수 있는 내용	조심할 단정
잘못을 숨기려 기록을 지움	책임을 피하려는 태도	평생 모든 일에서 거짓말한다

드러난 단서	짐작할 수 있는 내용	조심할 단정
문 앞에서 여러 번 손을 들었다 내림	망설임이나 주저함	반드시 죄책감 때문이다
주변 사람들이 그의 약속을 믿고 기다림	약속을 지켜 온 인물일 가능성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 없다

간접 제시는 **보여 주기, 극적·장면적 제시**라고도 합니다. 행동을 기록한 문장이 모두 인물의 모든 특성을 확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특히 표정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감정도 없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비유로 이해하기

같은 친구가 비 오는 날 옆 사람에게 우산을 씌워 주는 모습을 보여 줍니다. 배려한다고 이름 붙이지 않아도 행동에서 특성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비유의 한계: 이 비유는 행동으로 보여 주는 방식까지만 맞습니다. 한 번의 행동만으로 그 사람의 평소 성격 전체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 **흔한 착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므로 아무 생각도 없다.
- **바로잡기**: 침묵이 생긴 상황과 함께 제시된 행동을 봅니다.

확인 질문: 이 해석은 제시된 행동보다 지나치게 넓지 않나요?

연결 문항: Q04 · Q16 · Q17 · Q18 · Q19 · Q20 · Q22 · Q60

E10 말과 행동이 다르면 어느 쪽을 보나요?

한 줄 답 — 누가 한 말인지 나누고, 행동·상황·서술자의 설명을 대조합니다.

예: “나는 조금도 아깝지 않아.” 민지는 이렇게 말하고도 빈 지갑을 몇 번이나 들여다보았다. 말은 아깝지 않다는 주장이고, 행동은 그 말과 어긋나는 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러나 행동만 보고 누구를 미워한다고까지 확대할 수는 없습니다.

인물의 말은 거짓말, 체면을 지키려는 말, 착각일 수 있습니다. 다른 인물의 평가도 곧바로 확정된 사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함께 쓰인 예: “민지는 몹시 초조했다. 문이 열릴 때마다 자리에서 반쯤 일어났다.” 첫 문장은 심리를 직접 설명하고, 다음 문장은 행동으로 보여 줍니다. 직접·간접 제시가 함께 쓰였습니다.

‘직접 제시가 쓰였다’와 ‘직접 제시만 쓰였다’는 다른 주장입니다. 선지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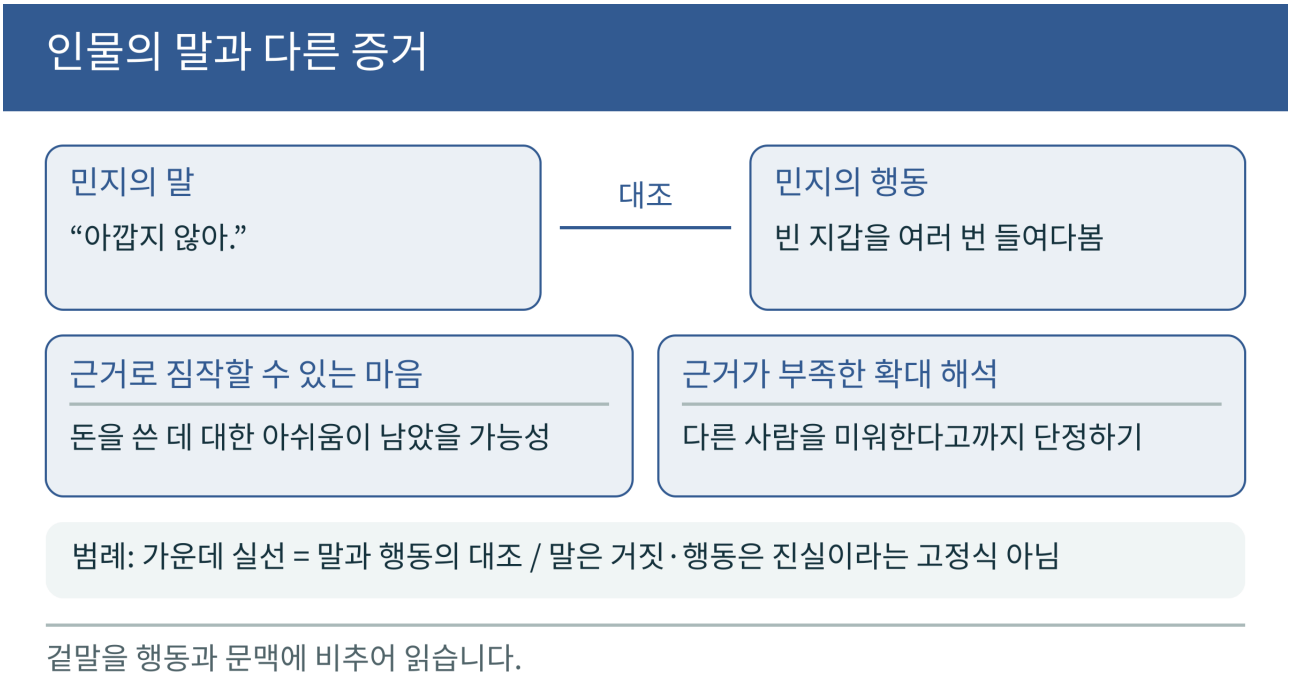
비유로 이해하기

물건에 붙은 설명과 실제 상태를 함께 살피듯, 인물의 주장도 다른 단서와 맞춰 봅니다.

비유의 한계: 겉말은 늘 거짓이고 행동만 참이라는 규칙은 아닙니다. 각 단서가 무엇을 뒷받침하는지 문맥별로 판단합니다.

- **흔한 착각**: 인물이 자기는 정직하다고 말했으므로 정직한 성격이 확정된다.
- **바로잡기**: 그 발언을 뒷받침하거나 뒤집는 행동과 상황을 확인합니다.

확인 질문: 인물의 주장과 이야기에서 확인된 사실을 구별했나요?



연결 문항: Q08 · Q21 · Q22 · Q60

E11 이름이 없거나 특이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 **한 줄 답** — 이름을 제시하는 방식과 그 방식이 문맥에서 하는 일을 연결합니다.

인물의 익명성은 서술에서 인물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제시 방식입니다. 이와 달리 서술자는 이름을 알려 주는데 작품 속 다른 인물만 번호나 직책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름 공개와 호칭 방식

구별할 층위	확인할 질문	해석의 범위
서술에서 이름을 밝히지 않음	독자에게 이름을 알려 주었는가?	인물 익명성의 판단
서술은 이름을 밝힘 / 다른 인물이 번호로 부름	누가 누구를 무엇이라 부르는가?	작품 속 호칭 방식의 판단

두 방식 모두 개인성이 약해지는 효과를 낼 수 있지만, 행동과 관계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름 없이 “아주머니”로만 제시되어도 이웃과 음식을 나누며 활발히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이름이 없어도 관계의 모습은 문맥에 따라 다릅니다.

두 방식 모두 개인의 고유한 모습을 지우는 효과를 낼 수 있지만, 그런 효과가 있는지는 행동과 관계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이름이나 호칭 하나만으로 소외·단절을 정하지 않습니다.

예: ‘아주머니’라고만 불리는 인물이 이웃의 사정을 속속 알고 함께 음식을 나눕니다. 서술에서는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사람들 사이의 소통은 활발합니다.

특성을 드러내는 이름은 이름에 성격·의식·사회적 특징을 담아 인물을 두드러지게 하는 방식입니다. ‘돈모아’라는 사람이 모든 관계를 이익으로 따진다면 이름과 행동이 연결됩니다. 별명이 있다는 사실보다 그 호칭의 뜻과 행동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비유로 이해하기

문패가 없다는 것과 그 집 안의 사람들이 서로 모른다는 것은 다른 정보입니다.

비유의 한계: 익명성의 효과가 언제나 집 안의 관계처럼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작품 전체의 호칭과 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 **흔한 착각**: 이름이 없으면 반드시 타인과 단절되어 있다.
- **바로잡기**: 이름의 제시 방식과 관계의 실제 모습을 구별합니다.

확인 질문: 이름이나 호칭의 의미를 뒷받침하는 행동·관계가 있나요?

연결 문항: Q23 · Q24 · Q49

묶음 3 사건과 갈등의 종류

인물	사건	갈등	변화·연결
E01~E11	E12	E13~E18	E19~E22

E12 사건이 이어졌다는 말과 원인·결과는 같나요?

> **한 줄 답** — 시간상 앞뒤에 놓였는지와 앞 사건이 뒤 사건을 일으켰는지를 구별합니다.

기호: →는 확인된 원인·결과, …는 시간상 뒤(원인 미확인)를 나타냅니다.

사건은 인물이 겪거나 일으키는 일입니다. 사건을 읽을 때에는 무엇이 일어났는지, 인물은 무엇을 선택했는지, 그 결과가 다음 일을 어떻게 바꾸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예: '다은이 잘못 붙인 안내를 그대로 두었다 → 손님들이 다른 장소로 갔다 → 공연 시작이 늦어졌다.' 잘못된 안내를 방치한 선택과 지연이라는 결과가 이어집니다.

연결	확인할 점
종이 울림 … 창문이 깨짐	순서만으로 종소리가 파손의 원인이라고 할 수 없음
강풍이 잠금장치가 풀린 창을 밂 → 유리가 깨짐	원인과 결과의 연결이 설명됨
실수를 인정하자 함께 고칠 사람이 모였다	인물의 선택이 뒤 사건의 계기가 됨

시간 배열을 더 자세히 다루는 순행·역순행 구성은 다음 범위로 남깁니다. 이번에는 선택과 인과 관계를 읽습니다.

비유로 이해하기

닭이 울고 나서 해가 떴다고 해서 닭의 울음이 해를 뜨게 한 것은 아닙니다. 앞뒤 순서와 원인·결과를 나누어 봅니다.

비유의 한계: 이 비유는 순서만으로 원인을 정하지 않는 데까지만 맞습니다. 소설에서는 앞 사건이 실제 원인일 수 있으므로 그 연결을 설명하는 문장을 확인합니다.

❌ **흔한 착각**: 먼저 일어난 사건은 모두 뒤 사건의 원인이다.

✅ **바로잡기**: 앞 사건이 뒤 사건에 영향을 준 근거를 찾습니다.

확인 질문: 두 사건 사이를 왜냐하면으로 연결할 근거가 있나요?

순서와 인과를 구별하기

시간상 뒤에 일어남

종이 울림 ···· 창문이 깨짐

종소리가 파손의 원인인지는 확인되지 않음

원인이 설명됨

강풍이 잠금 풀린 창을 밂 → 유리가 깨짐

강풍과 창의 상태가 파손을 설명함

범례: ··· 시간상 뒤(원인 미확인) / → 실제 원인·결과

먼저와 나중이라는 관계만으로 원인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연결 문항: Q25 · Q26 · Q47

E13 힘든 일이 나오면 모두 갈등인가요?

> **한 줄 답** — 서로 함께 이루어지기 어려운 욕구·가치·힘이 무엇인지 찾아야 합니다.

갈등은 서로 함께 이루어지기 어려운 욕구·가치·힘 등이 충돌하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다투지 않아도 갈등이 있을 수 있고, '힘들었다'는 말만으로 대립의 내용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 한 사람은 연습실을 밤새 쓰려 하고 다른 사람은 소음 때문에 닫으려 합니다. 장소를 쓰려는 목표와 조용히 쉬려는 목표가 충돌합니다. 반면 '한참 걸어 피곤했다'는 문장만으로는 무엇과 무엇이 맞서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갈등 틀: [이루려는 것] ⟷ [가로막는 것]. ⟷는 서로 맞섬을 뜻합니다. 양쪽은 좋고 나쁨의 구분이 아닙니다. 마음속 갈등에서는 한쪽 바람에 맞서는 다른 바람도 '가로막는 것' 칸에 씁니다.

갈등이 성립하는 조건



충돌이 드러난 근거: 같은 공간 사용에 서로 양보하지 않음

한쪽이 피곤하다는 사실만으로는 서로 맞서는 관계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범례: 양끝 화살표 = 서로 맞섬

힘든 상태와 맞서는 관계를 구별합니다.

갈등은 인물의 가치관을 드러내고 사건을 진행시키며 주제 형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소설에 뚜렷한 외적 갈등이나 완전한 해결이 반드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유로 이해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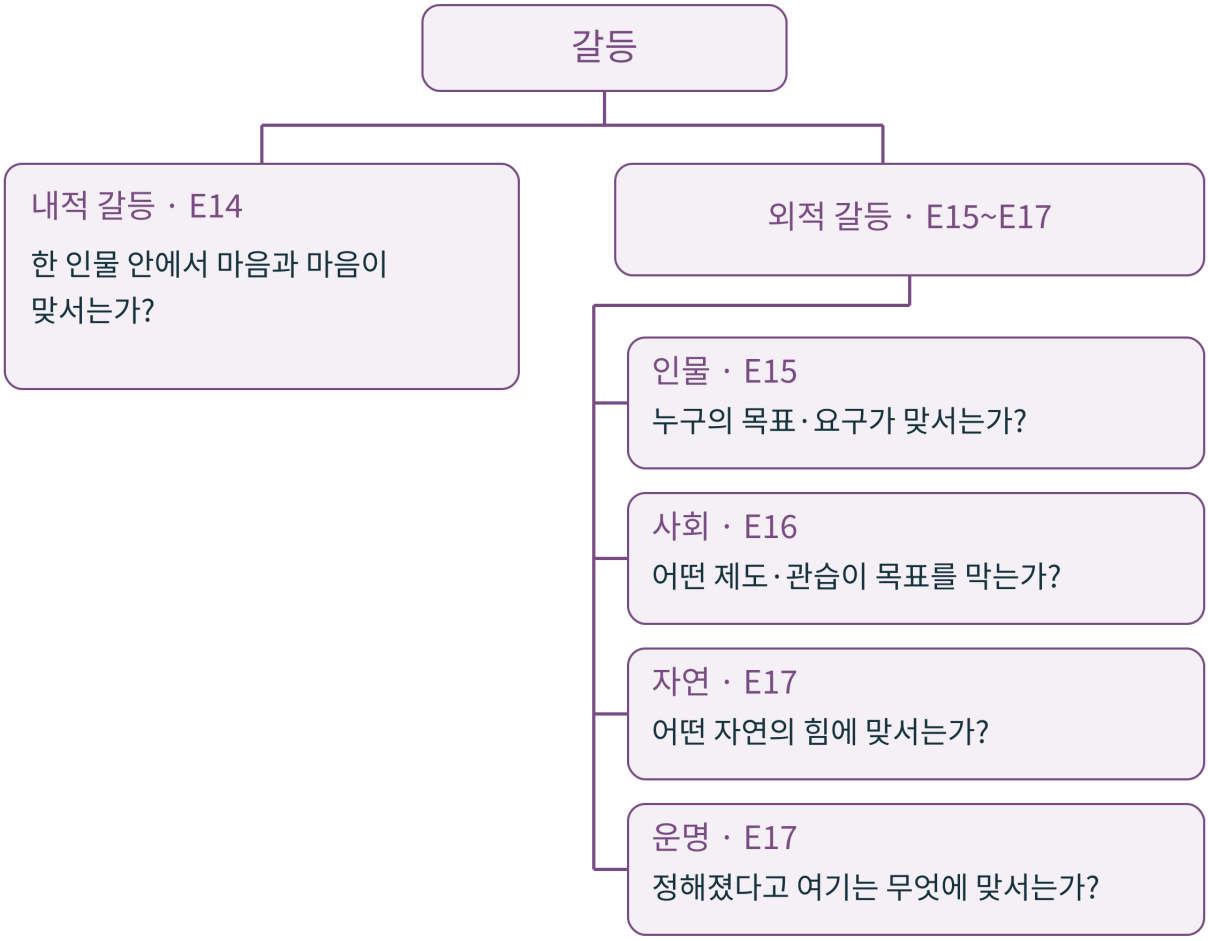
줄다리기에서 양쪽이 반대 방향으로 당기면 힘이 맞섭니다. 반면 줄을 당기는 상대나 방향은 모른 채 "한 팀이 지쳐 있다"는 정보만 들으면 맞서는 관계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비유의 한계: 이 비유는 힘듦과 대립을 구별하는 데까지만 맞습니다. 소설의 양쪽은 꼭 두 사람이 아니며 마음속 바람·사회 규칙·자연도 될 수 있습니다.

- **흔한 착각**: 언성을 높이지 않으면 갈등이 없다.
- **바로잡기**: 충돌하는 목표나 가치가 있는지 봅니다.

확인 질문: A는 무엇을 원하고 B는 무엇을 요구하나요?

갈등 분류 나무



범례: 가지선 = 분류 관계 / 원인·결과를 뜻하는 화살표 아님

한 장면에 여러 갈래의 갈등이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연결 문항: Q27 · Q28

E14 걱정이 있으면 모두 내적 갈등인가요?

> **한 줄 답** — 한 인물의 마음속에서 서로 맞서는 두 욕구·가치·판단을 확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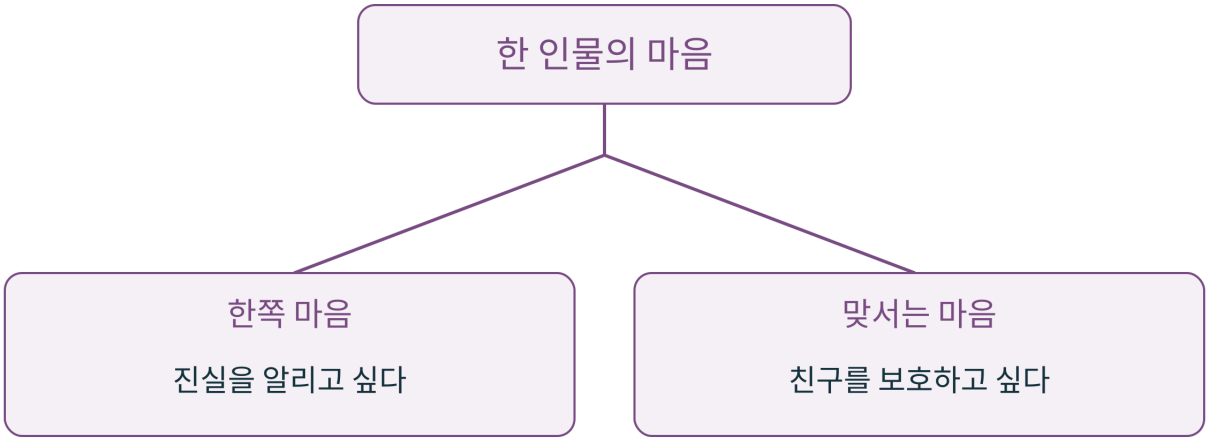
내적 갈등은 한 인물 안에서 욕구·가치·판단이 맞서는 갈등입니다. 단지 불안하거나 슬프다는 것과 구별합니다.

예: 사실을 말해 잘못을 바로잡고 싶지만, 말하면 친구가 곤란해질까 걱정되어 결정을 못 합니다. '진실을 알리고 싶다'와 '친구를 보호하고 싶다'가 맞섭니다.

문장	확인된 것
내일의 결과가 나쁠까 걱정했다	불안한 심리. 맞서는 선택은 아직 불분명
떠나 공부하고 싶지만 가족 곁에 남고도 싶었다	떠남과 머묾 사이의 내적 갈등
둘 다 가능한 두 계획의 날짜를 적었다	두 계획이 있다는 것만으로 갈등은 아님

답을 쓸 때는 '마음이 복잡하다'에 머물지 않고 맞서는 양쪽을 제시합니다. 선택이 끝났어도 그 선택을 둘러싼 미련이나 고민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한 인물의 마음속 갈림길



"결과가 걱정된다"만 제시되었다면?
한 방향의 불안일 수 있으므로 맞서는 마음이 있는지 더 확인합니다.

범례: 갈림길 = 한 인물 안에서 서로 맞서는 마음의 방향

내적 갈등에서는 마음속에 맞서는 두 방향을 찾습니다.

비유로 이해하기

두 길을 동시에 갈 수 없는 갈림길처럼, 한 사람이 함께 이루기 어려운 방향 사이에서 망설일 수 있습니다.

비유의 한계: 선택지가 꼭 두 개뿐인 것은 아니며, 내적 갈등이 항상 눈에 보이는 선택으로 표현되지는 않습니다.

❌ **흔한 착각**: 긴장했으므로 내적 갈등이다.

✅ **바로잡기**: 무엇을 바라는 마음과 무엇을 바라는 마음이 맞서는지 찾습니다.

확인 질문: 맞서는 두 마음을 각각 쓸 수 있나요?

연결 문항: Q28 · Q29 · Q30 · Q41 · Q46

E15 인물과 인물의 갈등은 성격이 다르면 생기나요?

> **한 줄 답** — 성격 차이 자체보다 서로의 목표·가치·행동이 실제로 충돌하는지를 봅니다.

인물과 인물의 갈등은 인물들이 서로 다른 목표나 가치관 때문에 대립하는 외적 갈등입니다.

예: 누나는 오래된 자전거를 고쳐 계속 쓰자고 하고 동생은 팔아 버리자고 합니다. 서로의 계획이 같은 자전거를 두고 충돌합니다. 누나가 조용하고 동생이 활발하다는 설명만으로는 갈등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립의 이유가 서로 다른 정보일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약속 장소를 잘못 알았다면 오해가 갈등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상대를 미워한다는 문장이 없어도 서로의 행동을 막는다면 대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루려는 것	가로막는 것	충돌이 드러난 근거
자전거를 고쳐 계속 쓰려는 누나	자전거를 팔려는 동생	같은 자전거를 두고 서로 다른 계획을 추진함

비유로 이해하기

한 물건을 동시에 서로 다른 곳으로 옮기려 하면 행동이 부딪힙니다.

비유의 한계: 문학의 갈등은 물건 다툼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가치관·관계·정보의 차이도 원인이 됩니다.

❌ **흔한 착각**: 취향이나 성격이 다르면 반드시 갈등 관계이다.

✅ **바로잡기**: 차이가 실제 목표나 행동의 충돌로 이어졌는지 확인합니다.

확인 질문: 두 인물이 서로의 어떤 계획을 막고 있나요?

연결 문항: Q27 · Q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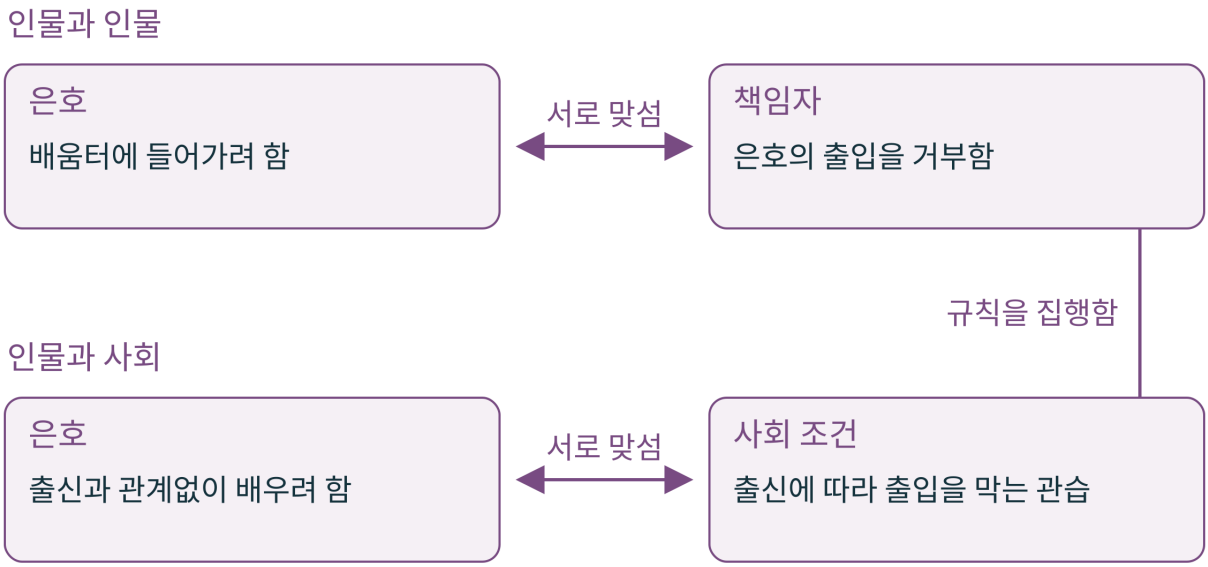
E16 제도에 맞서는데 앞에 사람이 있으면 어떤 갈등인가요?

> **한 줄 답** — 직접 대립하는 상대와 그 대립을 낳는 사회 제도·관습을 함께 봅니다.

인물과 사회의 갈등은 인물이 제도·관습·신분 질서·사회적 억압 등과 맞서는 외적 갈등입니다.

예: 마을에서는 특정 집안 출신에게만 배움터 출입을 허용합니다. 은호는 이 규칙을 바꾸자고 요구하고, 책임자는 관습을 지켜야 한다며 거부합니다. 은호와 책임자의 대립이 드러나지만 근본적으로는 차별적 관습과의 갈등도 있습니다.

직접 상대와 사회 조건



범례: 양끝 화살표 = 서로 맞섬 / 세로 실선 = 집행 관계

눈앞의 상대와 대립을 낳는 관습을 함께 봅니다.

한 장면에 인물 간 갈등과 사회와의 갈등이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와 싸웠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사회 갈등인 것은 아닙니다. 사적인 오해인지 제도·관습의 문제인지 확인합니다.

비유로 이해하기

문 앞의 사람과 이야기하고 있어도 닫힌 문을 유지하는 규칙이 문제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비유의 한계: 모든 문이나 규칙이 억압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작품에서 인물이 어떤 제도와 왜 맞서는지 확인합니다.

❌ **흔한 착각**: 대립 상대가 사람이므로 사회와의 갈등은 아니다.

✅ **바로잡기**: 직접 상대와 근본적인 대립 조건을 함께 봅니다.

확인 질문: 인물 개인이 바뀌어도 그 제도 때문에 문제가 남나요?

연결 문항: Q32 · Q33 · Q42 · Q51

E17 자연과 운명의 갈등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한 줄 답 — 자연환경·재해에 맞서는지, 피하기 어렵다고 여기는 운명적 조건에 맞서는지 살핍니다.

자연·운명과 맞서는 조건

이루려는 것	가로막는 것	충돌이 드러난 근거
강 건너로 돌아가려 함	불어난 강물이 길을 막음	귀가하려는 사람이 강물의 힘에 맞섬
예언된 파멸을 피하려 함	피하기 어렵다고 여겨지는 예언의 조건	정해졌다고 여기는 길을 바꾸려 나섬

자연과의 갈등

날씨·강물이 배경에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함

운명과의 갈등

예언이 제시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함

등장한 대상보다 무엇이 무엇을 가로막는지 봅니다.

폭풍우가 배경에 나온다는 사실만으로 자연과의 갈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항해하려는 목표를 파도가 막고, 인물이 그 힘에 맞서는 등의 대립이 필요합니다.

또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모두 운명과의 갈등인 것은 아닙니다. 작품이 그것을 피하기 어려운 운명적 조건으로 제시하고 인물이 그 조건과 맞서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예언이 제시되어도 그것을 피하거나 바꾸려는 대립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비유로 이해하기

밖에서 밀려오는 파도를 막는 일과 정해진 길이라고 믿는 경로를 바꾸려는 일은 맞서는 대상이 다릅니다.

비유의 한계: 실제 세상에서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주장이 아닙니다. 작품이 제시한 조건과 인물의 인식을 읽는 비교입니다.

❌ **흔한 착각**: 비가 오거나 불행한 일이 생기면 자연·운명 갈등이다.

✅ **바로잡기**: 환경이나 조건이 목표와 충돌하고 인물이 이에 맞서는지 확인합니다.

확인 질문: 어떤 힘이 인물의 무엇을 가로막나요?

연결 문항: Q34 · Q35 · Q36 · Q53

E18 한 사건에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이 함께 있나요?

> **한 줄 답** — 인물 밖의 대립과 그 대립을 겪으며 마음속에서 생긴 충돌을 나누어 찾습니다.

예: 강물이 불어나 지후의 귀갓길을 막습니다. 지후는 안전한 곳에 머물러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홀로 기다릴 동생이 걱정되어 강을 건너고 싶어 합니다.

바깥의 대립과 마음속 충돌

외적 갈등(인물 ⟷ 자연)
지후: 집으로 돌아가려 함 ⟷ 불어난 강물: 귀갓길을 막음

강물이 길을 막자

↓

마음속 고민이 생김

내적 갈등(마음 ⟷ 마음)
안전을 위해 머물려는 판단 ⟷ 동생에게 돌아가려는 마음

머물러야 한다면서도 강을 건너고 싶어 합니다. 두 마음은 같은 지후 안에서 맞섭니다.

범례: ⟷ 서로 맞섬 / ↓ 바깥의 사건이 마음속 고민의 계기가 됨

하나의 사건에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이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바깥 문제가 해결되면 마음속 고민도 풀릴 수 있지만 언제나 함께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리를 다시 건너게 되어도 동생을 오래 혼자 두었다는 죄책감이 남을 수 있습니다. 죄책감 자체와 그 뒤의 내적 갈등 성립 여부 역시 구별합니다.

비유로 이해하기

축구 경기에서 상대 팀이 공을 빼앗으려 달려들 때, 공을 잡은 선수는 직접 슛해 점수를 내고 싶지만 더 좋은 자리에 있는 동료에게 패스해야 한다고도 생각합니다. 바깥의 경쟁과 마음속 망설임이 함께 나타납니다.

비유의 한계: 이 비유는 외부의 대립과 내부의 두 방향이 공존한다는 데까지만 맞습니다. 선택지가 있다는 것만으로 갈등은 아니며, 소설의 고민은 오래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 **흔한 착각**: 갈등 유형은 한 장면에 하나만 고를 수 있다.

✅ **바로잡기**: 유형마다 성립 근거가 있으면 함께 설명합니다.

확인 질문: 바깥의 대립과 마음속 두 방향을 따로 찾았나요?

연결 문항: Q33 · Q36 · Q41 · Q42 · Q46 · Q51 · Q53

묶음 4 갈등의 변화와 사건의 연결

인물	사건	갈등	변화·연결
E01~E11	E12	E13~E18	E19~E22

E19 갈등이 심해졌다는 것은 무엇이 달라졌다는 뜻인가요?

> **한 줄 답** — 대립이 더 뚜렷해지거나 해결하기 어려워진 변화를 확인합니다.

갈등의 심화는 대립이 뚜렷해지거나 해결하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목소리나 표정의 변화만이 아니라 선택의 여지, 이해관계, 새로 생긴 장애를 봅니다.

예: 두 가게가 물 사용 시간을 놓고 협의하던 중, 한쪽이 상대의 수도관을 잠가 버립니다. 말로 조정하던 대립이 실제 영업 방해로 커지고 신뢰까지 무너집니다.

앞	뒤	심화의 근거
의견이 달라도 대화함	서로의 말을 듣지 않음	타협의 통로가 좁아짐
일정만 조정하면 됨	비용 부담까지 충돌함	다투는 문제가 늘어남
오해를 풀 증거가 있음	증거가 사라짐	해결이 더 어려워짐

인물이 조용히 말해도 상대의 선택지를 막는 행동을 하면 갈등은 심해질 수 있습니다.

비유로 이해하기

실에 매듭이 하나 더 생기면 풀기 어려워지듯, 새 장애나 불신이 대립을 깊게 할 수 있습니다.

비유의 한계: 갈등이 항상 매듭 수처럼 단계적으로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후의 구체적인 변화를 비교합니다.

- ✗ **흔한 착각**: 조용한 장면이므로 갈등은 약해졌다.
- ✓ **바로잡기**: 말투와 별개로 대립 조건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봅니다.

확인 질문: 이전보다 해결을 어렵게 한 변화가 무엇인가요?

연결 문항: Q37 · Q43 · Q52

E20 다툼이 멈추면 갈등이 해소된 건가요?

> **한 줄 답** — 대립의 원인이 풀렸는지, 충돌이 잠시 멈춘 것인지 구별합니다.

갈등의 해소는 대립 원인이 없어지거나 타협·선택 등으로 충돌이 풀리는 것입니다. 외부 사람이 들어와 말만 멈춘 경우와 다릅니다.

갈등의 상태를 나누어 보기

심화 · 더 어려워졌나?	일시적 중단 · 말만 멈췄나?
대화로 조정하던 중 상대의 수도관을 잠가 영업까지 막음	늦은 시간이라 내일 다시 따지기로 함
일부 해소 · 무엇이 남았나?	**해소 · 원인이 풀렸나?**
사용 시간은 나눴지만 비용 부담으로 계속 다툼	잘못된 기록을 바로잡고 서로의 몫에 합의함

네 칸은 비교 항목입니다. 반드시 이 순서로 진행하는 단계가 아닙니다.

풀린 쟁점과 남은 쟁점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예: 두 반이 강당 사용 시간을 나누기로 합의하면 시간 다툼은 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망가진 장비의 책임을 놓고 대립한다면 '모든 갈등이 해소되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비유로 이해하기

불이 꺼진 경고등만 보고 고장이 고쳐졌다고 할 수 없듯, 겉으로 조용해진 것과 원인 해결을 나눕니다.

비유의 한계: 문학의 갈등은 기계 고장처럼 원인이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쟁점이 풀렸는지를 적어야 합니다.

✕ **흔한 착각**: 장면이 끝났으므로 갈등도 모두 끝났다.

✓ **바로잡기**: 해결된 쟁점과 남은 쟁점을 구별합니다.

확인 질문: 대립을 낳았던 원인이 실제로 달라졌나요?

연결 문항: Q38 · Q39 · Q43 · Q47 · Q48 · Q52 · Q56

E21 긴장이 풀리면 갈등도 끝난 건가요?

한 줄 답 — 긴장·이완은 불안과 집중의 높낮이이고, 갈등 해소는 대립이 풀렸는지에 관한 판단입니다.

긴장은 갈등·위험·불확실성 때문에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불안과 집중이 커지는 상태입니다.
이완은 위험이 줄거나 사건 흐름이 느슨해지며 긴장이 낮아지는 상태입니다.

예: 추격을 받던 인물이 잠시 빈 창고에 숨었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져 숨을 돌리지만, 밖에는 여전히 추격자가 있습니다. 당장의 긴장은 줄어도 추격자와의 대립은 계속됩니다.

판단할 것	핵심 질문
긴장·이완	사건의 위험·불확실성·급박함이 커지는가 줄어드는가?
갈등 심화·해소	맞서는 욕구·가치·힘의 충돌이 깊어지는가 풀리는가?

등장인물이 웃었다고 독자의 긴장까지 항상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물이 모르는 위험을 독자가 알고 있다면 웃는 장면에서도 불안이 커질 수 있습니다.

비유로 이해하기

달리다가 잠깐 숨을 고른다고 목적지에 도착한 것은 아니듯, 이완과 문제 해결은 다릅니다.

비유의 한계: 모든 이완이 단순한 휴식 장면으로 표현되지는 않습니다. 사건의 위험과 정보가 어떻게 바뀌는지 살핍니다.

✕ **흔한 착각**: 한숨 돌리는 장면은 모든 갈등이 해결된 장면이다.

✓ **바로잡기**: 줄어든 긴장과 남은 대립을 따로 확인합니다.

확인 질문: 위험이 잠시 멀어진 것인가요, 대립 원인이 풀린 것인가요?

긴장 이완과 갈등 해소

빈 창고 안	창고 밖
인물이 잠시 숨음 발소리가 멀어져 숨을 돌림 당장의 위험이 줄어듦	추격자가 여전히 있음 추격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함 대립은 계속됨

긴장은 낮아졌지만 대립의 원인이 풀린 것은 아닙니다.

숨을 돌리는 순간에도 갈등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연결 문항: Q40 · Q43 · Q48 · Q54

E22 그럴듯함·반드시 일어남·우연은 어떻게 다른가요?

한 줄 답 — 작품 안에서 일어날 법한지, 조건상 반드시 이어지는지, 뜻밖의 상황이 연결을 이끄는지를 나누어 봅니다.

개연성·필연성·우연성

개념	판단 기준	설명 예
개연성	조건·인과상 일어날 법함	수리 경험이 많은 인물이 고장 원인을 알아냄
필연성	조건상 반드시 그 결과가 이어짐	탈출 수단이 모두 막혀 조건이 유지되는 동안 나갈 수 없음
우연성	계획·예상하지 않은 연결	여행길에서 약속 없이 옛 은인을 만남

약속 없는 만남 + 두 사람이 같은 시장을 자주 찾는 습관
우연한 만남이면서 일어날 법한 사건일 수 있습니다.

우연한 사건도 작품의 조건에 따라 개연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연한 만남이라도 두 인물이 모두 같은 지역 시장을 자주 찾는다는 설정이 있으면 개연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연성과 개연성은 서로를 무조건 지우는 말이 아닙니다.

비교: 오랫동안 수리해 온 인물이 장치를 고칠 가능성은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경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성공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필연성을 말하려면 다른 결과가 가능하지 않은 조건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환상적 세계에서도 작품이 정한 조건을 일관되게 따르는지 살필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 보기 드물다는 이유만으로 작품 속 개연성이 곧바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연결: 고전 소설을 읽을 때에도 우연한 만남이나 뜻밖의 도움으로 사건이 풀리는 방식을 살핍니다. 앞의 조건이 그 결과를 꼭 이끌어 낸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사건 전개의 필연성이 약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비유로 이해하기

매일 연습한 친구가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냈다면 그럴 법합니다. 지구 표면 가까이에서 컵을 손에서 놓고 받치거나 붙잡는 것이 없다면 컵은 아래로 떨어집니다. 길에서 몇 년 못 본 친구를 약속 없이 만났다면 뜻밖의 연결입니다. 그런데 둘 다 그 동네 학원에 다닌다면 그 만남도 그럴 법해집니다.

비유의 한계: 이 비유는 그럴 법함·조건상 반드시·뜻밖의 연결이라는 뜻 차이까지만 맞습니다. 문학의 필연성을 물리 법칙 하나로 판정하지 않고 작품이 정한 조건과 인과로 판단합니다.

- ✗ **흔한 착각**: 우연히 일어났으므로 개연성은 전혀 없다.
- ✓ **바로잡기**: 우연한 연결인지와 작품 안에서 납득할 조건이 있는지를 따로 봅니다.

확인 질문: 가능하다는 근거를 반드시라는 주장으로 바꾸지 않았나요?

연결 문항: Q44 · Q55 · Q56 · Q57 · Q58

개념 적용 Q01~Q40

묶음 1 소설과 인물의 유형 · Q01~Q13

Q01 다음은 한 작가가 소설을 쓴 과정이다. 소설의 허구성을 바르게 이해한 것은?

작가는 어린 시절 살던 골목을 떠올리며 소설을 썼다. 골목의 모습은 일부 살렸지만, 주인공의 직업과 이웃 사이의 사건은 새로 만들었다.

① 실제 골목을 살렸으므로 새로 만든 이웃 사이의 사건도 사실로 읽어야 한다.

② 인물의 직업을 새로 만들었으므로 골목에서 얻은 경험과의 연결은 약해진다.

③ 실제 장소가 바탕이 된 부분은 소설보다 작가의 생활 기록으로 분류해야 한다.

④ 경험한 골목을 바탕으로 하되 인물의 직업과 사건을 새로 구성한 소설이다.

정답·해설

Q02 다음 부분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은?

소설 속에서 이야기를 전하는 '나'는 말했다. "나는 스무 살에 고향을 떠났다. 그때는 누구의 충고도 듣지 않았다."

① 서술자 '나'의 나이를 바탕으로 실제 작가의 이력을 짐작할 수 있다.

② 서술자 '나'는 고향을 떠났을 때 충고를 듣지 않았던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한다.

③ 서술자 '나'가 고백하므로 실제 작가의 성격을 설명한 대목이다.

④ 서술자 '나'와 실제 작가가 같은 사람이라는 점이 드러난다.

정답·해설

Q03 인물 유형을 판단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야기는 수리공 선오의 선택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선오는 첫 장면에서도, 큰 손해를 겪은 마지막 장면에서도 고장 원인을 숨기지 않고 사실대로 알린다.

① 선오의 선택이 사건의 중심을 이루며 정직한 핵심 성격은 전후에 유지된다.

② 선오가 큰 손해 뒤에도 사실을 알리는 선택을 했으므로 그 경험으로 새 성격이 생긴 것이다.

③ 정직한 성격이 유지되므로 사건을 이끌기보다 곁에서 돕는 인물이다.

④ 정직한 성격이 눈에 띄므로 그 시대 수리공들의 공통 모습을 대표한다.

정답·해설

Q04 다음 발췌문에 대한 판단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해진은 낯선 여행객의 무거운 가방을 정류장까지 들어 주었다. 버스가 오자 손을 흔들고 돌아섰다. [이 장면 외의 정보는 주어지지 않았다.]

① 도움을 주는 동안 같은 태도를 보이므로 작품 전반에서도 평면적일 듯하다.

② 도움 행동은 드러나지만 성격 변화의 전후는 드러나지 않는다.

③ 여행객을 도우며 행동이 달라졌으므로 입체적인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④ 도움을 주는 친절이 드러나므로 이 시대 사람들의 특징을 대표한다고 본다.

정답·해설

Q05 서하와 기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서하는 사라진 마을 기록을 되찾으려 조사에 나섰다. 이야기는 서하가 단서를 찾고 위험을 넘는 과정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기록을 숨긴 기현은 서하가 자료실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열쇠를 감추었다.

① 기현이 열쇠를 감추어 서하의 다음 행동을 일으켰으므로 기록 찾기를 이끄는 주동 인물이다.

② 서하는 기록을 찾는 일을 이끌고 기현은 자료실 접근을 막는 반동 인물이다.

③ 서하는 방해에 대응하므로 기현이 이끄는 사건의 주변 인물에 해당한다.

④ 두 사람이 자료실을 둘러싸고 움직이므로 기록을 찾는 공동 목표를 지닌다.

정답·해설

Q06 주변 인물의 역할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소설은 민재가 잃어버린 동생을 찾는 과정을 중심으로 이어진다. 매점 주인은 한 장면에만 등장하지만 동생이 어느 차를 탔는지 알려 준다. 민재는 그 말 덕분에 동생을 찾는다.

① 매점 주인은 등장 비중이 작아도 동생이 탄 차의 정보를 주어 사건 해결에 기여한다.

② 단서를 준 매점 주인이 동생 찾기 과정을 이끄는 주동 인물이다.

③ 민재가 매점 주인의 말에 의지했으므로 이야기의 중심이 옮겨 간다.

④ 한 장면에 등장하므로 동생을 찾는 사건과의 관련은 크지 않다고 본다.

정답·해설

Q07 주동·반동 역할과 가치 평가를 구별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작품은 태건의 밀수 계획과 실행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태건은 마을의 생필품을 몰래 빼돌리려 하고, 운송원 보라는 이를 알아내 길을 막는다. 서술은 태건의 이익 때문에 주민들이 겪는 고통을 드러내며 그의 탐욕을 비판한다.

① 태건은 밀수 계획으로 사건을 이끄는 역할을 하지만 그의 탐욕은 비판받는다.

② 태건이 목표를 향해 사건을 이끌기 때문에 작품은 그 실행력을 긍정한다.

③ 보라는 계획의 실행을 막으므로 작품이 비판하는 부정적 역할에 가깝다.

④ 태건이 비판받는 인물로 제시되므로 주요 사건을 이끄는 역할은 보라에게 있다.

정답·해설

Q08 작품의 가치 평가를 판단하는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호는 큰 돈을 벌겠다며 이웃의 물길을 막았다. 이후 이웃의 밭이 마르고, 정호가 자랑하던 창고도 돌봄을 잃은 마을에서 쓸모없이 비어 갔다. 결말은 그의 이익만 좇는 행동이 공동체와 자신을 함께 해쳤음을 드러낸다.

① 정호가 주요 사건을 이끌고 자기 목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점이 작품의 긍정적 평가를 보여 준다는 점

② 정호가 창고를 자랑했으므로 자기 행동을 좋은 선택으로 여겼다는 점

③ 공동체와 자신을 해친 행동의 결과가 결말에서 이익만 좇는 태도의 비판으로 이어진다는 점

④ 정호의 창고가 중요하게 등장하므로 그 행동의 가치도 높게 제시된다는 점

정답·해설

Q09 이 인물을 전형적으로 읽는 데 가장 직접적인 근거는?

작품은 돈을 빌려 준 대가로 농민의 수확을 빼앗는 지주들이 힘을 누리던 시대를 그린다. 지주 만복도 흉년을 이용해 빚을 늘리고 소작인의 땅을 차지한다.

낱말 풀이 — 소작인: 다른 사람의 땅을 빌려 농사짓고 그 대가를 내는 사람. 지주: 토지를 가진 사람. 흉년: 농사가 잘되지 않아 수확이 적은 해.

① 수확을 빼앗는 지주들의 모습이 만복의 행동에도 나타나 그 시대의 공통성을 보여 준다는 점

② 만복이 흉년을 이용해 많은 재산을 모아 이야기에서 눈에 띈다는 점

③ 만복이 소작인의 땅을 차지하려는 자기 목표를 향해 행동한다는 점

④ 만복이 농민을 외면하고 재산을 늘리는 부정적 인물로 평가되는 점이 지주층의 대표성을 보여 준다는 점

정답·해설

Q10 태준이라는 인물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마을 사람들은 홍수가 지나면 서로의 집부터 고쳐 주었다. 태준도 자기 집보다 이웃의 무너진 지붕을 먼저 손보았다. 일을 마치면 그날 고친 집의 모양을 작은 나무 조각에 새겨 집주인에게 건넸다. 마을에서 이런 조각을 건네는 사람은 태준뿐이었다.

① 태준이 이웃을 돕는 행동은 마을 사람들과 구별되는 개인의 특징이다.

② 태준이 집 모양 조각을 건네는 행동은 마을 사람들이 공유하는 특징이다.

③ 이웃부터 돕는 행동은 마을의 공통 특징이며 나무 조각을 건네는 행동은 태준의 고유성이다.

④ 서로 다른 두 행동을 하므로 태준의 핵심 성격이 변했다고 볼 수 있다.

정답·해설

Q11 다음 인물을 입체적 인물로 판단하는 핵심 근거는?

도하는 무슨 일을 하든 자신이 칭찬받는 것을 먼저 따졌다. 혼자 공을 차지하려다 동료가 떠난 뒤, 그는 협력이 없으면 성과도 지속될 수 없음을 깨달았다. 이후 여러 일을 맡으면서 공을 나누고 동료의 의견을 먼저 묻는 태도를 지켰다.

① 동료가 곁을 떠난 일을 계기로 도하가 깊은 슬픔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자기 공만 따지던 도하가 동료를 잃은 뒤 협력을 중시하며 행동을 이어 간다는 점

③ 도하가 동료를 잃은 뒤 여러 일을 맡아 이전보다 활동 범위를 넓히고 새로운 상황에서 일하게 된 점

④ 도하가 동료들과 다시 일하게 되었으므로 사건의 결과가 나아졌다는 점

정답·해설

Q12 이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변화는?

늘 약속을 지키는 유정은 결과 발표 전 초조해했다. 합격 소식을 듣자 환하게 웃었다. 그날 저녁에도 먼저 정한 친구와의 약속을 지키러 나갔다.

① 발표 전후의 심리는 초조함에서 기쁨으로 변해도 약속을 중시하는 성향은 유지된다.

② 마음이 초조함에서 기쁨으로 바뀌므로 약속을 대하는 성격도 변했다고 본다.

③ 초조할 때와 기쁠 때 모두 약속을 중시하는 성향이 나타나므로 발표 전후의 마음 상태도 같은 것으로 읽는다.

④ 합격이라는 큰 사건을 겪었기 때문에 성격의 변화 여부는 결과에서 판단한다.

정답·해설

Q13 서술 순서와 인물 유형을 구별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소설은 먼저 노인이 된 상윤의 모습을 보여 준 뒤 그의 어린 시절로 돌아간다. 상윤은 어린 시절에도, 노인이 된 뒤에도 손해를 감수하며 사실을 밝히는 성격을 지킨다.

① 노년을 먼저 들려준 서술 순서와 별개로 사실을 밝히는 정직한 핵심 성격은 유지된다.

② 노년을 먼저 보이고 어린 시절을 뒤에서 밝혔으므로 두 시기를 거치는 동안 성격도 다른 방향으로 변했다고 본다.

③ 정직함을 유지하므로 노년보다 어린 시절을 먼저 서술한 구성으로 판단한다.

④ 노년과 어린 시절이 교차하므로 핵심 성격이 서로 다른 두 인물로 나뉜다.

정답·해설

묶음 2 말과 행동에서 인물 읽기 · Q14~Q24

Q14 서윤의 심리와 태도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서윤은 조사 결과를 발표할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실수할까 두려웠지만, 잘못된 수치를 바로잡겠다며 자료를 들고 회의장 앞으로 나갔다.

① 심리: 불안 / 태도: 실수를 피하려는 소극적 회피

② 심리: 자신감 / 태도: 적극적인 문제 해결

③ 심리: 발표 실수를 걱정하는 불안 / 태도: 수치를 바로잡으려는 적극적인 문제 해결

④ 심리: 안도 / 태도: 드러난 문제를 받아들이는 수용

정답·해설

Q15 인물의 성격·심리·태도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평소 다른 사람의 의견을 차분히 듣던 윤재는 자신의 실수로 자료가 사라지자 당황했다. 그는 책임을 피하지 않고 동료에게 사실을 알린 뒤 복구 방법을 찾았다.

① 평소 의견을 차분히 듣는 데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하는 성향이 보인다.

② 당황한 심리에 비추어 문제 해결을 뒤로 미루는 태도를 읽을 수 있다.

③ 실수로 자료가 사라진 직후에는 예상 밖 상황에 당황한 마음이 드러난다.

④ 동료에게 사실을 알리고 복구를 찾는 데서 책임 있게 대응하는 태도가 보인다.

정답·해설

Q16 이 장면에서 인물의 마음을 읽는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주아는 얼굴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그러나 합격자 명단에서 동생의 이름을 확인하자, 쥐고 있던 손수건을 천천히 펴고 길게 숨을 내쉬었다.

① 변하지 않은 얼굴 표정에서 동생의 결과에 무관심한 태도를 짐작한다.

② 손수건을 펴는 행동에서 동생의 합격을 못마땅해하는 마음을 읽는다.

③ 무표정과 함께 손수건을 펴고 숨을 내쉬는 행동을 읽어 안도하는 마음을 짐작한다.

④ 명단을 확인한 뒤 표정을 바꾸지 않고 길게 숨을 내쉬므로 기대와 다른 결과를 받아들인 낙담으로 읽을 수 있다.

정답·해설

Q17 인물의 성격을 직접 제시한 문장은?

㉠ 정민은 작은 이익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이었다. ㉡ 그는 잘못 거슬러 받은 돈을 들고 가게로 돌아갔다. ㉢ 주인은 정민을 보고 안심하며 장부를 내밀었다. ㉣ “이 돈은 제 것이 아니에요.” 정민이 말했다.

① ㉡

② ㉢

③ ㉣

④ ㉠

정답·해설

Q18 다음 두 문장의 제시 방식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가) 승우는 낯선 일을 앞두면 쉽게 겁을 먹었다. (나) 승우는 지원서를 내밀려다 세 번이나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① (가)는 겁내는 장면을 보여 주고 (나)는 망설이는 성격을 직접 풀이한다.

② (나)는 인물의 말 대신 행동만 제시하므로 마음을 읽을 단서가 부족하다.

③ 두 문장은 인물 자신의 대사가 아니라 서술자가 인물의 특성과 행동을 적어 전달했으므로 같은 직접 제시로 묶을 수 있다.

④ (가)는 겁내는 특성을 직접 설명하고 (나)는 지원서를 다시 넣는 행동으로 망설임을 보인다.

정답·해설

Q19 다음 행동에서 가장 타당하게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찬우는 새로 산 우산을 접고, 비를 맞고 서 있는 동생에게 건넸다. 자신은 가방으로 머리를 가리고 동생의 걸음에 맞추어 천천히 걸었다.

① 우산을 건네는 행동은 새 물건에 집착하지 않는 평소 성격을 설명한다.

② 우산을 건네고 걸음을 맞추는 행동에서 비를 맞는 동생을 배려하는 태도가 드러난다.

③ 걸음을 늦추는 행동에서 동생을 기다리기 싫어하는 심리를 읽을 수 있다.

④ 동생을 챙기는 행동으로 보아 이전보다 이타적인 성격으로 변한 듯하다.

정답·해설

Q20 이 부분의 인물 제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유라는 봉투를 뜯지 못한 채 모서리만 접었다 폈다. 문밖에서 발소리가 들리자 봉투를 책 아래에 밀어 넣었다.

① 봉투를 여러 번 만지는 행동이 불안한 성격을 직접 풀이한 설명이다.

② 봉투를 뜯지 못하다가 발소리에 감추는 행동이 망설임과 숨기려는 마음의 단서가 된다.

③ 유라가 봉투를 만지기만 하다가 발소리에 책 아래로 감추는 행동으로 바꾸었으므로 핵심 가치관도 달라졌다고 본다.

④ 발소리를 듣고 감춘 데서 봉투를 가져온 사람을 원망하는 마음을 읽는다.

정답·해설

Q21 인물의 발언과 행동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누가 상을 받든 상관없어." 해솔은 웃었다. 하지만 친구가 수상자로 불리자 건네려던 축하 편지를 서랍 깊숙이 밀어 넣고 한동안 꺼내지 않았다.

① 상을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편지는 마음의 변화와 관련이 적다.

② 웃는 얼굴을 보여 주었으므로 친구를 축하하는 마음이 행동과 일치한다.

③ 수상 소식 뒤 축하 편지를 깊숙이 넣어 간직했으므로 친구와의 관계를 이전보다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읽는다.

④ 상관없다는 발언과 축하 편지를 감추는 행동의 차이에서 마음의 불편함을 짐작한다.

정답·해설

Q22 이 부분에서 함께 쓰인 인물 제시 방식은?

윤호는 자신의 실수가 드러날까 몹시 초조했다. 친구가 기록장을 펼칠 때마다 의자를 바싹 당기고 책상 위를 손으로 가렸다.

① 초조함을 말해 주었으므로 뒤의 행동도 심리를 직접 설명하는 방식이다.

② 초조함을 서술자가 직접 설명하고 책상 위를 가리는 행동으로도 그 심리를 드러낸다.

③ 친구의 행동이 있으므로 윤호의 심리는 주변 인물의 평가로만 드러난다.

④ 의자를 당기는 장면이 있으므로 심리 설명 없이 간접 제시로 이루어져 있다.

정답·해설

Q23 이 부분의 익명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야기에서 '할머니'의 이름은 끝내 밝혀지지 않는다. 할머니는 이웃 아이들의 생일을 기억하고, 아이들은 고민이 생기면 할머니를 찾아와 오래 이야기를 나눈다.

① 이름 대신 호칭만 사용하는 방식으로 인물을 제시하고 있다.

② 생일을 기억하고 고민을 나누는 행동에서 친밀한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이름을 생략한 방식에서 공동체의 관계가 멀어진 모습을 읽을 수 있다.

④ 이름의 생략이 어떤 효과를 내는지는 이웃과의 관계를 함께 보아야 한다.

정답·해설

Q24 인물 이름의 기능을 해석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람들은 그를 '몫챙김'이라고 불렀다. 공동 작업이 끝나면 그는 누구보다 먼저 자신에게 돌아올 돈을 셌고, 다른 사람의 품삯이 줄어도 자기 몫에는 손대지 못하게 했다.

낱말 풀이 — 품삯: 일을 해 준 대가로 받는 돈.

① 몫을 챙긴다는 호칭의 뜻과 품삯에서 자기 몫을 먼저 지키려는 행동이 연결된다.

② 별명으로 부르므로 개인의 성격보다 이름을 감춘 익명성에 초점을 둔다.

③ 여러 사람이 같은 별명으로 부르고 그도 그 뜻에 맞게 행동하므로 공동 작업자들의 공통 성격을 대표한다.

④ 사람들이 붙인 호칭이므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행동을 긍정하는 듯하다.

정답·해설

묶음 3 사건과 갈등의 종류 · Q25~Q36

Q25 사건의 원인·결과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유민은 공연장의 바뀐 입구를 알리는 안내판을 만들고도 창고에 두었다. 관객들은 예전 입구에 몰렸고, 직원들이 다시 길을 안내하느라 공연 시작이 늦어졌다.

① 직원들이 관객을 다시 안내한 일이 관객이 예전 입구에 몰린 처음 원인이다.

② 관객이 예전 입구에 모였기 때문에 유민이 안내판을 창고에 두게 되었다.

③ 직원의 길 안내로 문제가 풀렸으므로 미설치와 공연 지연은 별개로 읽는다.

④ 창고에 안내판을 둔 선택이 관객의 입구 혼란을 일으키고 재안내 과정에서 공연이 지연되었다.

정답·해설

Q26 다음 문장만으로 확정할 수 있는 것은?

준영이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뒤 집 안의 전등이 꺼졌다. 준영은 문 앞에서 기다렸다.

① 준영이 문 앞에서 기다렸으므로 집 안 사람과의 대립이 시작되었다고 본다.

② 초인종을 누른 뒤 전등이 꺼졌다는 순서가 드러난다.

③ 초인종 직후 전등이 꺼졌으므로 방문을 꺼린 집 안 사람의 반응으로 읽는다.

④ 소등 뒤 기다리는 데서 준영이 집 안 사람에게 불만을 품었다고 짐작한다.

정답·해설

Q27 갈등이 성립한 근거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 주는 것은?

같은 전시실을 두고 세아는 소리 없는 독서 공간으로 쓰려 하고, 도윤은 북 연주 연습장으로 쓰려 한다. 두 사람은 같은 시간에 양보 없이 공간을 사용하겠다고 주장한다.

① 두 사람이 전시실을 서로 다른 목적에 사용하려고 생각한다.

② 세아는 조용한 공간을 바라며 북 연주보다 독서 활동을 좋아한다.

③ 도윤은 연주를 중요하게 생각해 전시실의 필요성을 느끼는 듯하다.

④ 같은 시간의 공간에서 조용한 독서와 북 연주를 각각 양보 없이 하려는 목표가 충돌한다.

정답·해설

Q28 갈등을 판단하는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재민은 언덕을 오래 걸어 피곤했다. (나) 재민은 마을을 떠나 일하고 싶었지만 아픈 아버지 곁에 남고 싶기도 했다.

① (가)는 힘든 상태이므로 걷고 싶은 마음과 쉬려는 마음의 갈등으로 읽는다.

② (나)는 아버지를 걱정하므로 서로 다른 두 인물 사이의 갈등에 해당한다.

③ (가)는 피로, (나)는 마음속 두 방향의 충돌을 보여 준다.

④ (나)는 아직 행동을 선택하지 않았으므로 갈등이 시작되기 전의 상태이다.

정답·해설

Q29 지은의 내적 갈등에서 맞서는 두 마음은?

지은은 대회에서 자신이 잘못 센 점수를 알게 되었다. 사실을 알리면 팀의 우승이 취소될 수 있었다. 그는 잘못을 바로잡고 싶었지만 기뻐하는 팀원들을 실망시키고 싶지는 않았다.

① 점수 계산의 실수를 찾아낸 지은의 판단과 계산을 잘못한 대회 심판의 판단

② 우승이 취소될까 불안한 마음과 기뻐하는 팀원들이 실망할까 걱정하는 마음

③ 잘못을 공개해 점수를 바로잡으려는 마음과 팀원들의 기쁨을 지켜 주려는 마음

④ 팀의 우승을 기뻐하는 마음과 기쁨이 오래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정답·해설

Q30 내적 갈등이 제시되었다고 판단하려면 추가로 가장 필요한 정보는?

민규는 내일 결과가 발표된다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① 마음 안에서 서로 맞서는 욕구나 판단이 무엇인지

② 민규의 걱정이 잠을 못 이룰 정도로 크다는 사실

③ 민규와 같은 결과를 기다리는 경쟁 상대가 있는지

④ 결과 발표 시간이 늦어져 기다림이 길어진 것인지

정답·해설

Q31 인물과 인물의 갈등이 성립했음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 주는 근거는?

주희는 고장 난 라디오를 수리해 할머니에게 돌려드리자고 했다. 동생은 수리비가 아깝다며 라디오를 들고 나가 버리려 했다. 주희는 출입문 앞을 막아섰다.

① 두 사람이 라디오의 앞으로의 쓰임에 서로 다른 생각을 가졌다는 점

② 동생이 라디오를 고치는 데 드는 돈을 아깝게 생각한다는 점

③ 보존하려는 주희가 버리려는 동생의 행동을 가로막았다는 점

④ 주희가 라디오를 수리해 할머니에게 돌려드리려 한다는 점

정답·해설

Q32 수빈이 맞서는 근본적인 조건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 것은?

마을의 공동 우물 관리 회의에서는 땅을 가진 사람만 의견을 말할 수 있었다. 땅 없이 집을 빌려 사는 수빈은 우물물을 함께 쓰는 모든 주민에게 발언 기회를 주자고 요구했다. 회의를 이끄는 땅 주인들은 오래 지켜 온 규칙이라며 거부했다.

① 땅 주인과 수빈 사이에서 오래 쌓인 개인적 감정

② 집을 빌려 사는 형편을 바꾸려는 수빈의 개인적 욕구

③ 우물을 공동으로 쓰는 주민 사이의 물 부족 문제

④ 땅의 소유 여부로 발언 기회를 나누는 사회적 규칙

정답·해설

Q33 이 장면의 갈등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소희가 일하는 창고에는 휴식 시간에도 작업대 곁을 떠날 수 없다는 규칙이 있었다. 소희는 쉴 때는 밖에 나가 몸을 풀 수 있도록 바꾸자고 요구했다. 관리인은 일손이 필요해질 때 바로 일을 시켜야 한다며 출입문을 열어 주지 않았다.

① 관리인이 문을 막으므로 규칙보다 두 사람의 개인적인 감정이 대립의 원인이다.

② 관리인과 대립하면서 휴식을 제한하는 일터 규칙에도 맞선다.

③ 밖에 나가려는 마음과 규칙을 지키려는 마음이 소희 안에서 맞서는 장면이다.

④ 출입문이 닫혔기 때문에 자연환경이 소희의 목표 실현을 가로막는 장면이다.

정답·해설

Q34 자연과의 갈등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부분은?

㉠ 바람이 창가의 화분을 스쳤다. ㉡ 어민들은 거센 물결이 밀어내는 배를 항구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밧줄을 잡고 버텼다. ㉢ 저녁노을이 언덕을 붉게 물들였다. ㉣ 그는 맑은 하늘을 보고 여행을 떠올렸다.

① ㉠

② ㉢

③ ㉣

④ ㉡

정답·해설

Q35 인물과 운명의 갈등으로 읽는 가장 직접적인 근거는?

작품 속 예언은 가문의 마지막 아이가 스무 살에 탑에서 사라질 것이라 했다. 사람들은 바꿀 수 없는 운명이라 믿었다. 라온은 그 아이를 구하려 예언을 깨뜨릴 방법을 찾아 나섰다.

① 사람들이 아이에 관한 예언을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믿는다는 점

② 라온이 아이를 구할 방법을 찾기 위해 살던 곳을 떠나려 한다는 점

③ 예언에서 탑이 아이가 사라질 장소로 미리 정해져 있다는 점

④ 바꿀 수 없다고 여기는 예언을 라온이 깨뜨리려 한다는 점

정답·해설

Q36 외적 갈등과 내적 갈등을 바르게 구별한 것은?

산불이 마을로 가는 길을 막았다. 구조 대원 채린은 갇힌 주민에게 가고 싶었지만 동료들의 안전을 위해 지금은 물러서야 한다고도 생각했다.

① 외적: 채린과 동료들의 대립 / 내적: 구조하러 가는 길에서 산불을 두려워하는 마음

② 외적: 길을 막는 산불 / 내적: 주민에게 가는 도중 산불이 거세질까 걱정하는 마음

③ 외적: 길을 막는 산불 / 내적: 구조에 나서려는 마음과 동료의 안전을 지키려는 판단

④ 외적: 구조와 철수 사이의 망설임 / 내적: 마을로 가는 길을 막고 있는 산불의 위험

정답·해설

묶음 4 갈등의 변화와 사건의 연결 · Q37~Q40

Q37 갈등이 심화되었음을 보여 주는 핵심 변화는?

두 공방은 공동 가마를 쓸 순서를 놓고 협의하고 있었다. 그러다 한 공방이 약속된 시간 전에 가마의 문을 잠그고 상대의 작품을 밖에 내놓았다. 다른 공방은 더는 협의하지 않겠다며 사용료 지급을 거부했다.

① 사용 순서의 협의가 실제 방해와 협의 거부로 바뀌어 해결이 어려워졌다.

② 상대 작품을 밖에 내놓아 공간을 나누었으므로 사용 순서의 갈등이 풀렸다.

③ 협의가 끝났으므로 당사자들이 각자의 요구를 조정하는 단계로 옮겨 갔다.

④ 사용료를 내지 않기로 한 선택으로 가마 사용 문제를 양측이 정리했다.

정답·해설

Q38 다음 상황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 것은?

두 사람은 공동 마당의 경계를 놓고 다투었다. 비가 쏟아지자 각자 집으로 들어갔지만, 내일 다시 나와 자기 경계선을 주장하기로 마음먹었다.

① 각자 집으로 돌아갔으므로 서로의 경계를 인정하는 타협이 이루어졌다.

② 비 때문에 다툼은 멈췄지만 다음 날에도 각자의 경계선을 주장하려 하므로 원인은 남아 있다.

③ 다음 날 이야기하기로 했으므로 경계 문제는 풀리고 만날 날짜만 남았다.

④ 비를 함께 피하는 행동을 보이므로 경계에 관한 이해관계도 가까워졌다.

정답·해설

Q39 이 상황의 갈등 해소 범위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두 동아리는 체육관 사용 요일을 나누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깨진 창문의 수리비를 어느 동아리가 낼지를 두고 여전히 대립했다.

① 수리비 논의가 남았으므로 사용 요일도 아직 합의되지 않은 상태로 본다.

② 요일을 나누어 쓰기로 했으므로 수리비도 같은 비율로 나누기로 한 듯하다.

③ 사용 요일은 합의했지만 수리비 부담에는 대립이 남아 있다.

④ 수리비 문제로 대립하므로 사용 요일을 나누었던 합의는 취소된 상태이다.

정답·해설

Q40 긴장·이완과 갈등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추격자의 발소리가 멀어지자 연우는 숨을 골랐다. 잠깐은 안전했다. 그러나 유일한 출구 앞에는 여전히 추격자의 동료가 서 있었고, 연우는 그곳을 지나야 했다.

① 발소리가 멀어진 것은 추격자와의 대립을 끝내고 탈출에 성공한 결과이다.

② 출구가 막혀 있으므로 숨을 돌리는 순간에도 긴장의 정도는 이전과 같다.

③ 잠시 숨을 돌리는 이완 속에도 출구를 막는 위험과 대립은 남아 있다.

④ 잠깐 안전해진 결과 추격자가 출구의 봉쇄를 풀어 주려는 의도를 읽을 수 있다.

정답·해설

짧게 쓰기 Q41~Q44

Q41 지후의 내적 갈등에서 맞서는 두 마음을 각각 한 구절로 쓰세요.

지후는 고장 난 전시물을 자신이 건드렸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다. 그러나 함께 준비한 친구들이 발표 기회를 잃을까 두려워 입을 떼지 못했다.

답: _____

정답·해설

Q42 나린이 겪는 갈등의 유형을 쓰고, 그렇게 판단한 근거를 한 문장으로 쓰세요.

장터는 새로 이사 온 사람에게는 판매 자리를 주지 않았다. 나린은 오래 살았는지가 아니라 같은 조건으로 장사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며 관습을 바꾸자고 요구했다.

답: _____

정답·해설

Q43 해결된 쟁점과 남은 쟁점을 각각 쓰세요.

서점 주인과 배송 기사는 상자를 놓을 장소를 정해 다툼을 멈췄다. 하지만 젖은 책의 손해를 누가 부담할지는 다음 날 다시 의논하기로 했다.

답: _____

정답·해설

Q44 “우연한 만남이므로 개연성은 없다.”라는 판단을 고쳐, 이 만남의 우연성과 개연성을 한 문장으로 설명하세요.

혜림은 매주 토요일 같은 시장에서 재료를 샀다. 같은 동네 요리사 준도 토요일이면 그 시장에 들렀다. 두 사람은 약속하지 않았는데 어느 토요일 같은 가게 앞에서 마주쳤다.

답: _____

정답·해설

판단 근거 총정리

묶음 1 소설과 인물의 유형

개념	판단 근거	구별할 점
중심인물·주요 인물	선택과 결과가 이야기의 중심이 됨	먼저 등장했다는 것만으로 부족
주변 인물·보조 인물	중심인물을 돕거나 두드러지게 하고 사건에 관여함	비중이 작다고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님
주동 인물	주요 목표를 향해 사건을 이끎	선한 행동이라는 뜻은 아님
반동 인물	주동 인물의 목표 실현에 맞섬	악한 인물이라는 뜻은 아님
전형적 인물	집단·계층·시대의 공통 특징을 대표함	자주 등장하거나 흔한 이름만으로 부족
개성적 인물	개인의 고유한 성격이 두드러짐	대표성을 함께 지닐 수 있음
평면적 인물	사건 전후 핵심 성격이 유지됨	한 장면·서술 순서만으로 부족
입체적 인물	경험을 거치며 성격·가치관이 변함	일시적인 감정 변화만으로 부족
긍정적·부정적 인물	작품의 가치와 행동의 평가를 연결함	주동·반동이나 개인적 호감과 같지 않음
소설의 허구성	상상으로 구성한 인물·사건이 삶을 드러냄	실제 경험을 활용할 수 있음

묶음 2 말과 행동에서 인물 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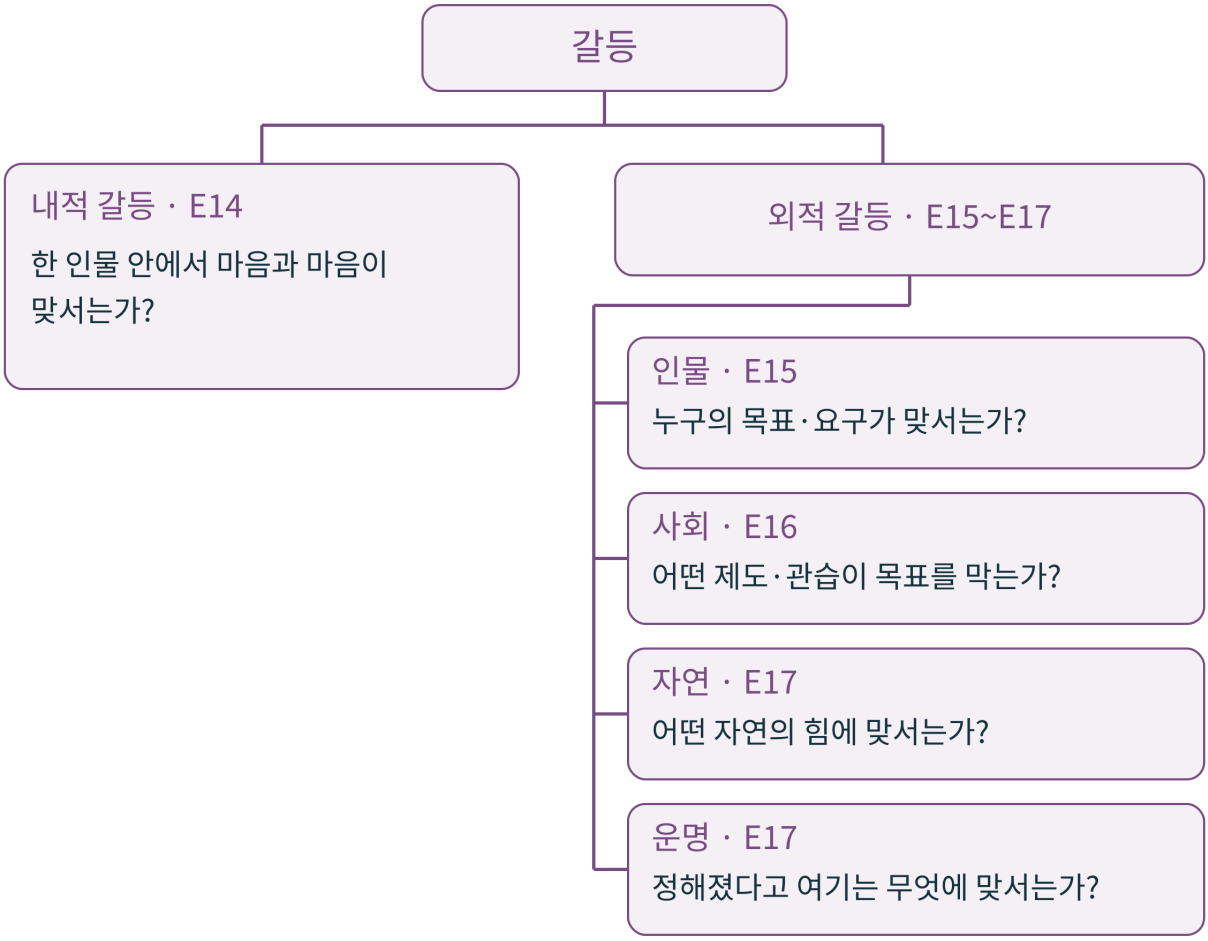
개념	판단 근거	구별할 점
직접 제시·말하기	서술자가 성격·심리를 설명함	인물의 대사라는 이유만으로 판단하지 않음
간접 제시·보여 주기	말·행동·외양·주변 반응에서 짐작함	단서 한 개를 모든 상황으로 확대하지 않음
심리	상황 속에서 느끼고 생각하는 마음	감정 변화가 곧 성격 변화는 아님
태도	상황·대상을 대하는 자세	불안한 마음과 적극적 대응이 공존 가능
인물의 익명성	이름을 밝히지 않는 방식과 문맥상 효과	이름 없음이 언제나 소통 단절은 아님

개념	판단 근거	구별할 점
특성을 드러내는 이름	이름의 뜻이 행동·성격과 연결됨	이름만으로 모든 특성을 확정하지 않음

묶음 3 사건과 갈등의 종류

개념	판단 근거	구별할 점
사건	인물이 겪거나 일으킨 일과 선택·결과	시간상 앞뒤가 곧 인과는 아님
갈등	함께 이루어지기 어려운 욕구·가치·힘의 충돌	힘들거나 다른 점만으로 부족
내적 갈등	한 인물 안의 두 방향이 맞섬	불안한 마음 하나만으로 부족
인물과 인물의 갈등	인물의 목표·가치·행동이 서로 충돌함	성격 차이만으로 부족
인물과 사회의 갈등	제도·관습·사회적 억압에 맞섬	직접 상대가 있어도 함께 성립 가능
인물과 자연의 갈등	목표를 막는 자연환경·재해에 맞섬	자연이 배경에 등장한 것만으로 부족
인물과 운명의 갈등	운명적 조건에 맞서 바꾸려 함	불행이나 예언의 등장만으로 부족

갈등 분류 나무



범례: 가지선 = 분류 관계 / 원인·결과를 뜻하는 화살표 아님

한 장면에 여러 갈래의 갈등이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묶음 4 갈등의 변화와 사건의 연결

개념	판단 근거	구별할 점
갈등의 심화	대립이 깊어지거나 해결이 어려워짐	목소리의 크기로만 판단하지 않음
갈등의 해소	원인·타협·선택으로 해당 충돌이 풀림	중단·일부 해결을 전체 해소로 확대하지 않음
긴장	위험·불확실성으로 불안과 집중이 커짐	인물이 웃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음

개념	판단 근거	구별할 점
이완	당장의 위험·불확실성 등이 줄어 긴장이 낮아짐	갈등이 모두 해소되었다는 뜻은 아님
개연성	작품의 조건과 인과 관계상 일어날 법함	현실에서 흔한 일인지와 완전히 같지 않음
필연성	앞선 조건상 그 결과가 반드시 이어짐	가능성이나 성공 기대만으로 부족
우연성	뜻밖의 만남·상황이 사건을 연결함	개연성과 공존할 수 있음

종합 적용 Q45~Q60

자료 A 「남겨 둘 자리」

[Q45~Q4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학습용 창작 지문

① 마을의 오래된 목욕탕이 문을 닫은 뒤, 해원은 그곳을 주민들의 작은 공연장으로 바꾸자고 나섰다. 이야기는 빈 건물의 문을 처음 연 날부터 첫 공연까지, 해원이 부딪힌 문제와 선택을 따라간다. 해원은 건물주 성태에게 한 달만 빌려 달라고 부탁했다. 성태는 출입문을 열고 해원과 함께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열쇠를 쥔 채 금이 간 천장을 가리켰다. “사람부터 들일 수는 없지. 무너지기라도 하면 어쩌겠니.” 그는 열쇠를 내주지 않았다.



창작 지문 「남겨 둘 자리」의 한 장면

② 해원은 성태가 낡은 건물을 없애고 싶어서 핑계를 댄다고 생각했다. “그럼 구석에 놓인 악기라도 꺼내게 해 주세요.” 성태는 직접 구석까지 가서 악기를 옮겼다. 악기 상자 위에는 자기가 가진 천을 덮어 두었다. 해원은 그 모습을 보면서도 전단에 적은 공연 날짜를 지우지 못했다.

③ 밤이 되자 해원은 전단을 펼쳤다. 약속한 날에 무대를 열어 주민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다. 한편으로는 천장의 금이 떠올랐다. 공연을 미루고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도 지워지지 않았다. 손님 명단 아래에 ‘예정대로’라고 썼다가, 그 옆에 ‘연기’라고 작게 적었다.

④ 다음 날 아침, 목수인 이웃 은길이 잠깐 들렀다. 그는 천장의 일부를 지탱하는 나무가 약해졌다며 먼저 보강해야 할 위치를 알려 주었다. 그 말을 들은 해원은 주민들에게 연기를 알리고 보강 비용을 모았다. 성태는 보강이 확인되자 열쇠를 건넸다. “이제야 사람들을 불러도 되겠구나.”

⑤ 첫 공연이 끝난 밤, 해원과 성태는 텅 빈 객석을 함께 정리했다. 그러나 다음 달 임대료를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는 결정하지 못했다. 두 사람은 계산서를 펼쳐 놓고 다음 회의 날짜를 정했다.

낱말 풀이 — 보강: 약한 부분을 더 튼튼하게 함. 임대료: 건물이나 물건을 빌려 쓰는 대가로 내는 돈.

Q45 자료 A에서 해원과 성태의 역할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성태가 공연 계획을 막으므로 주민의 안전보다 건물 처분을 중시하는 인물이다.

② 해원은 개설을 이끌고 성태는 안전을 이유로 실행을 막는다.

③ 은길이 보강 위치를 알려 주었으므로 그 뒤 공연 준비를 이끄는 중심인물이다.

④ 해원이 짐작한 대로 성태는 낡은 건물을 없애려고 핑계를 댄 인물이다.

정답·해설

Q46 자료 A의 ③에서 해원의 내적 갈등은?

① 약속대로 공연하려는 마음과 연기해 안전을 확인하려는 판단

② 공연을 열고 싶은 마음과 성태에게 핑계를 댄다고 원망하는 마음

③ 연기를 주민들에게 알리려는 판단과 보강 비용을 모으려는 계획

④ 공연을 추진하는 해원의 요구와 열쇠를 내주지 않는 성태의 거부

정답·해설

Q47 자료 A의 사건 연결을 바르게 이해한 것은?

① 성태가 악기를 옮긴 일로 안전이 확인되어 해원은 예정한 날짜에 공연을 열었다.

② 해원이 공연 날짜를 적어 둔 일 때문에 천장 보강의 필요가 새로 생겨났다.

③ 성태가 열쇠를 주기로 한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 은길의 진단을 받게 되었다.

④ 은길의 진단을 계기로 연기·보강을 선택했고 안전 확인 뒤 사용이 허용되었다.

정답·해설

Q48 자료 A의 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함께 객석을 정리하는 모습은 임대료 부담에도 타협했다는 근거이다.

② 보강 확인 뒤 열쇠를 준 행동은 안전 때문에 사용을 막던 대립이 풀린 근거이다.

③ 공연이 열린 뒤에도 다음 달 임대료 부담을 놓고 논의할 문제는 남아 있다.

④ 함께 정리하는 행동과 임대료의 합의 여부는 서로 구별해서 판단해야 한다.

정답·해설

자료 B 「이름을 적는 칸」

[Q49~Q5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학습용 창작 지문

① 선별장의 책임자는 일꾼들을 이름 대신 작업대 번호로 불렀다. “열둘, 속도를 맞춰.” 벽의 표에는 번호별로 옮긴 상자의 수만 적혔다. 책임자는 누군가 손을 다쳐도 그날 처리한 수량부터 물었다. 이야기는 ‘열둘’로 불린 다민이 일터의 규칙을 바꾸려는 과정을 따라간다.

② 다민은 일을 할 때마다 동료의 느슨한 장갑끈을 묶어 주었다. 첫날부터 그런 사람이었다. 어느 오후, 다민은 동료의 손목에서 피가 배어 나오는 것을 보고 작업대를 멈췄다. 책임자는 정해진 시간 밖에는 기계를 멈출 수 없다는 규칙을 내밀었다. 다민은 다친 사람이 생기면 즉시 멈추어야 한다고 맞섰다. 다민은 규칙을 바꾸자는 서명 용지를 만들어 동료들에게 돌렸다.



창작 지문 「이름을 적는 칸」의 한 장면

③ 책임자가 동료들 앞에서 손실을 모두 다민에게 물리겠다고 하자, 다민은 서명 용지를 주머니 깊숙이 밀어 넣었다. 자기 때문에 동료들까지 일자리를 잃을까 두려웠다. 그래도 다친 손을 보면서 아무 일 없다는 듯 작업을 계속할 수는 없었다. 다민은 용지를 다시 꺼내 자신이 본 일을 적었다.

④ 책임자는 항의 서류를 받지 않겠다며 사무실 문을 잠갔다. 다민과 동료들은 쉬는 시간마다 자기 이름으로 다친 경위를 기록했다. 창밖에 저녁 불이 켜져도 문은 열리지 않았다.

⑤ 동료들의 기록이 선별장 주인에게 전해지자, 주인은 며칠 뒤 책임자와 일꾼 대표들이 함께하는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다친 사람이 생기면 기계를 멈추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규칙을 고쳤다.

그러나 이미 다친 사람의 치료비 부담은 합의하지 못했다. 다민은 퇴근길에 멈춰 서서 처음 만난 동료의 장갑끈도 묶어 주었다. 동료는 "고마워, 다민아." 하고 이름을 불렀다.

낱말 풀이 — 선별장: 물건을 종류나 상태에 따라 골라 나누는 곳. 서명: 자기 이름을 직접 적음.

Q49 자료 B에서 번호로 부르는 방식의 효과를 판단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번호로 불리는 인물들이므로 동료 사이에도 서로의 사정을 모르는 단절이 드러난다.

② 끝에서 동료가 이름을 부르므로 앞의 번호 호칭은 작품의 의미와 관계가 적어진다.

③ 서술은 이름을 밝히지만 책임자의 번호 호명은 사람을 수량으로 보는 태도를 드러낸다.

④ 서술자가 이름을 알려 주므로 책임자의 번호 호명도 개인의 고유성을 존중하는 표현이다.

정답·해설

Q50 자료 B에서 다민의 변화 여부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서명 용지를 넣었다 다시 꺼냈으므로 이기적 성격에서 배려하는 성격으로 변한다.

② 망설이는 심리가 드러나지만 동료를 배려하는 성향은 전후에 유지된다.

③ 일터의 규칙을 바꾸는 데 성공했으므로 다민의 핵심 성격도 달라졌다고 판단한다.

④ 장갑끈을 묶는 행동이 앞뒤에 반복되므로 불이익을 걱정하는 마음에도 변화가 없다.

정답·해설

Q51 자료 B의 갈등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책임자와 말다툼한 일이므로 작업 중단 규칙은 갈등의 원인에서 제외하는 편이 맞다.

② 동료의 부상이 걱정되므로 내적 갈등은 다친 동료와 다민이 서로 맞서는 관계이다.

③ 규칙과 맞서면서 동료 보호와 불이익 걱정 사이에서도 망설인다.

④ 서류를 거부당한 뒤에도 기록했으므로 동료를 지키려는 마음은 불이익 걱정과 무관하다.

정답·해설

Q52 자료 B의 ④~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④의 서류 접수 거부는 다민과 동료들이 문제를 해결할 통로를 좁힌다.

② ⑤의 개정은 부상자가 생겨도 정해진 시간 밖에는 멈추지 못하던 조건을 바꾼다.

③ ⑤는 치료를 받을 길이 열린 것과 이미 생긴 치료비 부담이 미결인 것을 함께 보여 준다.

④ 작업 중단 규칙을 고친 합의에 치료비 부담의 대립도 포함되어 풀렸다.

정답·해설

자료 C 「종이 울리기 전」

[Q53~Q5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학습용 창작 지문

① 그 섬의 오래된 기록에는 ‘붉은 달이 뜨는 밤 등대의 마지막 종이 울리면, 등대지기 집안의 마지막 아이는 바다에 삼켜진다’고 적혀 있었다. 사람들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믿었다. 마지막 아이인 이솔도 오랫동안 그 말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붉은 달이 뜨기 사흘 전, 이솔은 집에 남아 기다리지 않기로 했다. 기록이 정해 놓은 길과 다른 길을 찾겠다고 작은 배를 준비했다. 섬의 옛이야기에는 바위 동굴의 문 너머로 가면 등대의 종을 멈출 장치에 닿는다고 했다. 이솔은 마지막 종이 울리기 전에 그 장치에 닿아 예언을 깨뜨리려 했다. 그 동굴은 절벽 아래에 있어 배로만 접근할 수 있었다.

② 예언된 날 해 질 무렵, 이솔이 출항하자 돌풍이 돛을 뒤집었다. 물결이 뱃전을 넘어왔고, 이솔은 돛을 내리고 노를 저어 바위 사이의 작은 동굴로 향했다. 파도는 배를 바깥으로 밀어냈다. 이솔은 노를 놓지 않았다.



창작 지문 「종이 울리기 전」의 한 장면

③ 간신히 동굴 안에 들어서자 바깥 물소리가 낮아졌다. 이솔은 물을 퍼내던 바가지를 내려놓고 잠시 숨을 돌렸다. 예언의 시간은 아직 지나지 않았고 바다도 계속 거칠었지만, 당장 배가 뒤집힐 위험은 줄었다.

④ 동굴 깊숙한 곳에는 바위 문이 있었다. 이 이야기의 세계에서 그 문은 두 개의 고리를 동시에 당겨야만 열리며, 부수거나 돌아 나갈 길은 없었다. 이솔이 한 고리만 당기는 동안 문은 열리지 않았다. 그는 반대쪽 고리에 밧줄을 걸어 두 고리를 함께 당길 방법을 떠올렸다.

⑤ 이솔은 밧줄을 묶으며 중얼거렸다. “정해진 말이라고 가만히 따르지는 않겠어.” 그때 멀리서 마지막 종을 알리는 첫 경고 종이 울렸다. 붉은 달이 수평선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이야기는 이솔이 두 밧줄을 잡는 장면에서 멈춘다.

낱말 풀이 — 뱃전: 배의 가장자리. 예언: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함.

Q53 자료 C의 ①~②에 나타난 외적 갈등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①은 예언을 깨뜨리려는 이솔과 운명의 대립이고 ②는 동굴로 가려는 이솔과 파도의 대립이다.

② ①은 이솔과 섬사람들의 직접 대립, ②는 겁나는 마음만으로 이루어진 내적 갈등이다.

③ ①은 기록을 믿으려는 내적 갈등, ②는 바다로 나갈지 결정하는 마음속 갈등이다.

④ ①은 출항 준비이므로 갈등 전의 상태, ②에서 파도가 등장한 뒤에야 대립이 시작된다.

정답·해설

Q54 자료 C의 ③을 가장 적절하게 이해한 것은?

① 동굴로 들어가 예언이 이루어질 장소를 벗어났으므로 운명과의 대립도 끝난다.

② 물소리가 낮아졌으므로 바다도 잔잔해져 귀항에 필요한 조건을 갖춘다.

③ 예언의 시간이 남아 있으므로 잠시 숨을 고르는 장면에서도 긴장 정도는 같다.

④ 당장 뒤집힐 위험은 줄었지만 예언과 거친 바다의 문제는 남는다.

정답·해설

Q55 자료 C의 ④에서 필연성이 성립하는 판단은?

① 조건이 유지되는 동안 한 고리만 당겨서는 문을 열 수 없다.

② 밧줄을 걸 방법을 떠올렸으므로 문을 여는 데 필요한 행동도 끝난 셈이다.

③ 동굴의 문에 닿았으므로 그 너머까지 가는 사건도 그 조건에서 보장된다.

④ 처음 문이 열리지 않았으므로 다른 방법을 써도 같은 결과가 이어질 것이다.

정답·해설

Q56 자료 C의 끝을 해석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두 밧줄을 잡는 장면은 문을 열어 예언을 깨뜨리는 데 성공했음을 보여 준다.

② 경고 종과 붉은 달이 나타났으므로 예언대로 이솔이 바다에 삼켜졌다고 볼 수 있다.

③ 이솔이 정해진 말을 따르지 않겠다고 하므로 실제 작가도 같은 운명을 겪었다.

④ 맞서려는 의지는 드러나지만 문 개방과 예언 극복의 결과는 미제시이다.

정답·해설

자료 D 「고장 난 시계의 오후」

[Q57~Q6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학습용 창작 지문

① 연지는 십 년 동안 낡은 시계를 수리했다. 부품 상인은 매주 수요일이면 오래된 물건을 파는 강변 장터에 들렀고, 연지도 수요일마다 그곳에서 부품을 구했다. 다만 두 사람은 그날 만나기로 약속한 적이 없었다. 그날 오후 연지가 멈춘 회중시계를 들여다보고 있을 때, 마침 상인이 옆 가게에서 나왔다.

② "그 시계에 맞는 작은 톱니가 내 상자에 하나 있을 텐데." 연지는 상인의 부품을 빌려 살펴보았다. 크기는 맞았지만 축이 조금 휘어 있었다. 그는 오래된 수리 도구를 꺼내 조심스럽게 축을 바로잡았다. 오랜 경험 덕분에 손에 익은 작업이었다. 그래도 내부의 다른 부품까지 멀쩡한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창작 지문 「고장 난 시계의 오후」의 한 장면

③ 그 시계를 맡긴 노인은 저녁 기차를 타고 떠날 예정이었다. 연지는 다 고쳤다고 말하면 수리비를 바로 받을 수 있었다. 예전의 연지라면 움직이기만 하는 시계를 넘기고 돈부터 챙겼을 것이다. 그러나 몇 해 전 자신이 서둘러 넘긴 시계 때문에 손님이 중요한 약속에 늦은 뒤, 연지는 수리를 마칠 때마다 오래 작동시켜 확인하는 사람이 되었다. 손해를 보더라도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숨기지 않았다.

④ "축은 고쳤지만 다른 부품은 더 봐야 합니다." 연지는 돈을 받지 않고 노인에게 말했다. 노인은 이번에는 고향에 갔다가 다음 주에 다시 오겠다고 했다. 노인은 오래전 연지의 스승이 운영하던 가게의 단골로, 가게를 기념해 찍은 사진 한 장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는 돌아서다가 연지의 작업대에 그 사진을 놓았다. 같은 장터의 가게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사진 속 작은 가게 앞에는 젊은 연지와 지금은 세상을 떠난 그의 스승이 나란히 서 있었다.

⑤ 연지는 한참 사진을 바라보았다. 눈가가 젖었다가 이내 희미한 웃음이 번졌다. 그는 사진을 세워 놓고, 시계가 같은 간격으로 움직이는지 다시 들었다.

낱말 풀이 — 회중시계: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시계. 축: 부품이 회전할 때 중심이 되는 막대. 단골: 자주 찾아오는 손님.

Q57 자료 D의 ①에 나타난 만남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같은 요일에 장터를 찾아왔으므로 그 가게 앞의 만남도 조건상 필연적이다.

② 약속 없는 만남은 우연하고, 같은 요일의 방문 습관은 만남을 그럴듯하게 한다.

③ 약속 없이 만났으므로 앞서 제시된 방문 습관으로는 그 만남을 설명하기 어렵다.

④ 상인이 부품을 가져왔으므로 연지가 그날 그곳에서 기다리기로 했다고 볼 수 있다.

정답·해설

Q58 자료 D의 ②에서 연지의 수리 행동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십 년 동안 쌓은 수리 경험이 있으므로 확인하지 않은 내부 부품도 정상으로 판단한다.

② 상인이 맞는 크기의 톱니를 내주었으므로 연지는 그날 점검을 마쳤다고 볼 수 있다.

③ 경험은 축을 바로잡는 행동의 개연성을 높이지만 전체 수리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

④ 시계가 잠시 움직이기 시작했으므로 오랜 경험이 수리의 성공을 필연적으로 만든다.

정답·해설

Q59 자료 D에서 연지의 성격 변화 판단에 가장 핵심적인 근거는?

① 사진을 보고 눈가가 젖었다가 웃음이 번지므로 성격이 다른 방향으로 바뀐다.

② 상인에게 맞는 부품을 얻어 작업 상황이 나아졌으므로 인물의 성향도 변한다.

③ 오랫동안 수리하여 기술이 익숙해졌으므로 이익을 대하는 가치관도 달라진다.

④ 이익을 서두르던 과거와 경험 뒤 확인·책임을 중시하는 선택이 대비된다.

정답·해설

Q60 자료 D를 읽은 판단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⑤의 감정 변화로 보아 ③의 변화도 순간적인 마음의 움직임에 가깝다.

② ③은 이익을 먼저 생각하던 성향과 이후 확인을 중시하게 된 태도를 설명한다.

③ ④는 확인하지 못한 부분을 숨기지 않는 행동으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 준다.

④ ⑤는 사진을 바라본 뒤 눈물과 웃음이 드러나는 행동으로 마음을 짐작하게 한다.

정답·해설

빠른 정답

문항	정답	문항	정답
Q01	④	Q02	②
Q03	①	Q04	②
Q05	②	Q06	①
Q07	①	Q08	③
Q09	①	Q10	③
Q11	②	Q12	①
Q13	①	Q14	③
Q15	②	Q16	③
Q17	④	Q18	④
Q19	②	Q20	②

문항	정답	문항	정답
Q21	④	Q22	②
Q23	③	Q24	①
Q25	④	Q26	②
Q27	④	Q28	③
Q29	③	Q30	①
Q31	③	Q32	④
Q33	②	Q34	④
Q35	④	Q36	③
Q37	①	Q38	②
Q39	③	Q40	③

문항	정답	문항	정답
Q45	②	Q46	①

문항	정답	문항	정답
Q47	④	Q48	①
Q49	③	Q50	②
Q51	③	Q52	④
Q53	①	Q54	④
Q55	①	Q56	④
Q57	②	Q58	③
Q59	④	Q60	①

짧게 쓰기	핵심 답
Q41	자신의 잘못을 사실대로 알리려는 마음 / 친구들의 발표 기회를 지켜 주려는 마음
Q42	인물과 사회의 갈등이다. 나린이 거주 기간에 따라 판매 기회를 제한하는 관습에 맞서기 때문이다.
Q43	해결됨: 상자를 놓을 장소 / 남아 있음: 젖은 책의 손해를 누가 부담할지
Q44	약속하지 않은 만남은 우연하지만, 두 사람이 같은 요일에 같은 시장을 자주 찾았다는 조건 때문에 만남이 일어날 법하여 개연성도 있다.

정답과 해설

해설 표의 ○는 옳은 진술, ×는 옳지 않은 진술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는 문항에서는 ×로 판단한 선지가 정답입니다.

A01 정답 ④

관련 개념: E01 · 문제로 돌아가기

근거 문장: "골목의 모습은 일부 살렸지만, 주인공의 직업과 이웃 사이의 사건은 새로 만들었다."

판단: 경험과 상상이 함께 쓰인 허구적 구성이다.

선지	선택지 내용	진술 판단	해설
①	실제 골목을 살렸으므로 새로 만든 이웃 사이의 사건도 사실로 읽어야 한다.	×	장소 일부가 실제라는 사실이 창작한 사건의 사실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②	인물의 직업을 새로 만들었으므로 골목에서 얻은 경험과의 연결은 약해진다.	×	직업을 창작해도 골목의 경험을 바탕으로 삶을 드러낼 수 있다. 연결이 약해졌다는 근거는 없다.
③	실제 장소가 바탕이 된 부분은 소설보다 작가의 생활 기록으로 분류해야 한다.	×	실제 장소를 활용한 부분도 상상으로 구성된 소설의 일부일 수 있다.
④	경험한 골목을 바탕으로 하되 인물의 직업과 사건을 새로 구성한 소설이다.	○	실제 골목을 활용하면서 직업과 사건은 새로 만들었다.

A02 정답 ②

관련 개념: E01 · 문제로 돌아가기

근거 문장: "나는 스무 살에 고향을 떠났다. 그때는 누구의 충고도 듣지 않았다."

판단: 서술자의 자기 과거에 관한 말이며 작가의 이력이 아니다.

선지	선택지 내용	진술 판단	해설
①	서술자 '나'의 나이를 바탕으로 실제 작가의 이력을 짐작할 수 있다.	×	서술자의 경험을 작가의 이력으로 옮길 근거가 없다.
②	서술자 '나'는 고향을 떠났을 때 충고를 듣지 않았던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한다.	○	작품 안의 목소리가 충고를 듣지 않았던 과거를 전한다.
③	서술자 '나'가 고백하므로 실제 작가의 성격을 설명한 대목이다.	×	고백 형식의 말도 작품 속 서술자의 말이다.

선지	선택지 내용	진술 판단	해설
④	서술자 '나'와 실제 작가가 같은 사람이라는 점이 드러난다.	×	작품 속 존재와 실제 작가의 동일성을 확인한 자료는 없다.

A03 정답 ①

관련 개념: E02 · E06 · 문제로 돌아가기

근거 문장: "이야기는 수리공 선오의 선택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판단: 중심인물의 비중과 처음·마지막의 성격 유지는 다른 기준이다.

선지	선택지 내용	진술 판단	해설
①	선오의 선택이 사건의 중심을 이루며 정직한 핵심 성격은 전후에 유지된다.	○	선오의 선택이 이야기의 중심이며 처음과 마지막의 정직함이 유지된다.
②	선오가 큰 손해 뒤에도 사실을 알리는 선택을 했으므로 그 경험으로 새 성격이 생긴 것이다.	×	중요한 일을 겪었다는 사실만으로 성격 변화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정직한 성격이 유지되므로 사건을 이끌기보다 곁에서 돕는 인물이다.	×	성격 변화와 사건에서의 비중은 다른 기준이다.
④	정직한 성격이 눈에 띄므로 그 시대 수리공들의 공통 모습을 대표한다.	×	특정 시대·집단을 대표한다는 근거가 없다.

A04 정답 ②

관련 개념: E02 · E06 · E09 · 문제로 돌아가기

근거 문장: "[이 장면 외의 정보는 주어지지 않았다.]"

판단: 한 장면의 행동만으로 작품 전체의 성격 변화를 정하지 않는다.

선지	선택지 내용	진술 판단	해설
①	도움을 주는 동안 같은 태도를 보이므로 작품 전반에서도 평면적일 듯하다.	×	짧은 행동의 일관성을 작품 전반으로 확대했다.
②	도움 행동은 드러나지만 성격 변화의 전후는 드러나지 않는다.	○	주어진 한 장면에는 핵심 성격의 전후 비교가 없다.
③	여행객을 도우며 행동이 달라졌으므로 입체적인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	도움을 주기 전 성격이 제시되지 않아 변화했다고 판단할 수 없다.
④	도움을 주는 친절이 드러나므로 이 시대 사람들의 특징을 대표한다고 본다.	×	친절한 행동만으로 시대 대표성을 판단할 수 없다.

A05 정답 ②

관련 개념: E03 · 문제로 돌아가기

근거 문장: “이야기는 서하가 단서를 찾고 위험을 넘는 과정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판단: 목표를 이끄는 서하와 그 접근을 막는 기현의 역할을 나눈다.

선지	선택지 내용	진술 판단	해설
①	기현이 열쇠를 감추어 서하의 다음 행동을 일으켰으므로 기록 찾기를 이끄는 주동 인물이다.	×	새 사건을 일으키는 행동 하나와 주요 목표를 이끄는 역할은 구별한다.
②	서하는 기록을 찾는 일을 이끌고 기현은 자료실 접근을 막는 반동 인물이다.	○	서하는 회수를 추진하고 기현은 자료실 접근을 막는다.
③	서하는 방해에 대응하므로 기현이 이끄는 사건의 주변 인물에 해당한다.	×	이야기는 서하의 조사와 선택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④	두 사람이 자료실을 둘러싸고 움직이므로 기록을 찾는 공동 목표를 지닌다.	×	서하는 찾으려 하고 기현은 접근을 막으므로 목표가 다르다.

A06 정답 ①

관련 개념: E03 · 문제로 돌아가기

근거 문장: “민재는 그 말 덕분에 동생을 찾는다.”

판단: 등장 비중이 작아도 사건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

선지	선택지 내용	진술 판단	해설
①	매점 주인은 등장 비중이 작아도 동생이 탄 차의 정보를 주어 사건 해결에 기여한다.	○	단서 제공은 비중이 작은 인물도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이다.
②	단서를 준 매점 주인이 동생 찾기 과정을 이끄는 주동 인물이다.	×	찾는 행동을 중심에서 이어 가는 인물은 민재다.
③	민재가 매점 주인의 말에 의지했으므로 이야기의 중심이 옮겨 간다.	×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이 중심인물의 변경을 뜻하지 않는다.
④	한 장면에 등장하므로 동생을 찾는 사건과의 관련은 크지 않다고 본다.	×	제공한 정보 덕분에 찾았으므로 사건 해결과의 관련이 크다.

A07 정답 ①

관련 개념: E04 · 문제로 돌아가기

근거 문장: “서술은 태건의 이익 때문에 주민들이 겪는 고통을 드러내며 그의 탐욕을 비판한다.”

판단: 주동 역할과 작품의 가치 평가는 일치해야 하는 관계가 아니다.

선지	선택지 내용	진술 판단	해설
①	태건은 밀수 계획으로 사건을 이끄는 역할을 하지만 그의 탐욕은 비판받는다.	○	태건의 밀수 계획이 전개 중심이면서 주민 고통을 낳는 행동은 비판된다.
②	태건이 목표를 향해 사건을 이끌기 때문에 작품은 그 실행력을 긍정한다.	×	주동 역할을 한다는 근거만으로 긍정 평가를 끌어낼 수 없다.
③	보라는 계획의 실행을 막으므로 작품이 비판하는 부정적 역할에 가깝다.	×	반동 역할과 가치상 부정적 평가는 다른 기준이다.
④	태건이 비판받는 인물로 제시되므로 주요 사건을 이끄는 역할은 보라에게 있다.	×	비판받아도 주동 역할을 할 수 있다.

A08 정답 ③

관련 개념: E04 · E10 · 문제로 돌아가기

근거 문장: “그의 이익만 좇는 행동이 공동체와 자신을 함께 해쳤음을 드러낸다.”

판단: 행동의 결과와 결말에서 작품의 비판적 평가를 읽는다.

선지	선택지 내용	진술 판단	해설
①	정호가 주요 사건을 이끌고 자기 목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점이 작품의 긍정적 평가를 보여 준다는 점	×	이는 사건의 역할을 보여 주며 긍정·부정 평가 자체의 근거는 아니다.
②	정호가 창고를 자랑했으므로 자기 행동을 좋은 선택으로 여겼다는 점	×	인물의 자기 평가와 작품이 드러내는 평가는 다르다.
③	공동체와 자신을 해친 행동의 결과가 결말에서 이익만 좇는 태도의 비판으로 이어진다는 점	○	공동체와 자신을 해친 결과가 작품의 비판적 평가를 뒷받침한다.
④	정호의 창고가 중요하게 등장하므로 그 행동의 가치도 높게 제시된다는 점	×	사건에서의 비중을 가치 평가로 바꾸었다.

A09 정답 ①

관련 개념: E05 · 문제로 돌아가기

근거 문장: “지주 만복도 흉년을 이용해 빚을 늘리고 소작인의 땅을 차지한다.”

판단: 그 시대 지주들의 행동과 겹치는 데서 집단의 대표성을 읽는다.

선지	선택지 내용	진술 판단	해설
①	수확을 빼앗는 지주들의 모습이 만복의 행동에도 나타나 그 시대의 공통성을 보여 준다는 점	○	시대 묘사의 공통 행동이 만복에게서도 나타나므로 대표성의 근거다.
②	만복이 흉년을 이용해 많은 재산을 모아 이야기에서 눈에 띈다는 점	×	눈에 띄는 정도만으로 집단의 공통 특징을 대표한다고 할 수 없다.
③	만복이 소작인의 땅을 차지하려는 자기 목표를 향해 행동한다는 점	×	목표를 추진하는 역할은 집단 대표성과 다른 기준이다.
④	만복이 농민을 외면하고 재산을 늘리는 부정적 인물로 평가되는 점이 지주층의 대표성을 보여 준다는 점	×	가치 평가가 곧 전형성의 근거는 아니다.

A10 정답 ③

관련 개념: E05 · E06 · 문제로 돌아가기

근거 문장: “태준도 자기 집보다 이웃의 무너진 지붕을 먼저 손보았다.”

판단: 공통 행동과 태준만의 조각 선물을 나누어 대표성·고유성을 읽는다.

선지	선택지 내용	진술 판단	해설
①	태준이 이웃을 돕는 행동은 마을 사람들과 구별되는 개인의 특징이다.	×	이웃부터 돕는 행동은 마을 사람들이 공유하는 특징이다.
②	태준이 집 모양 조각을 건네는 행동은 마을 사람들이 공유하는 특징이다.	×	그런 조각을 건네는 사람은 태준뿐이라고 했으므로 고유성의 근거다.
③	이웃부터 돕는 행동은 마을의 공통 특징이며 나무 조각을 건네는 행동은 태준의 고유성이다.	○	이웃 집을 먼저 고치는 공통성, 나무 조각을 건네는 고유성이 함께 제시된다.
④	서로 다른 두 행동을 하므로 태준의 핵심 성격이 변했다고 볼 수 있다.	×	공통성과 고유성의 공존이 성격의 전후 변화는 아니다.

A11 정답 ②

관련 개념: E06 · 문제로 돌아가기

근거 문장: “이후 여러 일을 맡으면서 공을 나누고 동료의 의견을 먼저 묻는 태도를 지켰다.”

판단: 자기 공을 중시하던 가치가 지속적인 협력의 태도로 바뀌었다.

선지	선택지 내용	진술 판단	해설
①	동료가 곁을 떠난 일을 계기로 도하가 깊은 슬픔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	슬픔은 심리 반응이며 핵심 성격 변화는 이후의 가치와 행동으로 확인한다.
②	자기 공만 따지던 도하가 동료를 잃은 뒤 협력을 중시하며 행동을 이어 간다는 점	○	가치관의 전후와 이후의 지속적인 실천이 제시된다.
③	도하가 동료를 잃은 뒤 여러 일을 맡아 이전보다 활동 범위를 넓히고 새로운 상황에서 일하게 된 점	×	활동 범위의 확장이 곧 성격 변화의 증거는 아니다.
④	도하가 동료들과 다시 일하게 되었으므로 사건의 결과가 나아졌다는 점	×	결과의 개선만으로 성격 변화를 정하지 않으며 달라진 선택을 봐야 한다.

A12 정답 ①

관련 개념: E06 · E07 · 문제로 돌아가기

근거 문장: “그날 저녁에도 먼저 정한 친구와의 약속을 지키러 나갔다.”

판단: 초조함과 기쁨이 바뀌어도 약속을 지키는 성향은 유지된다.

선지	선택지 내용	진술 판단	해설
①	발표 전후의 심리는 초조함에서 기쁨으로 변해도 약속을 중시하는 성향은 유지된다.	○	결과 앞뒤의 감정은 달라도 저녁 약속을 지키는 선택은 이어진다.
②	마음이 초조함에서 기쁨으로 바뀌므로 약속을 대하는 성격도 변했다고 본다.	×	감정 변화를 성격 변화로 옮길 근거가 없다.
③	초조할 때와 기쁠 때 모두 약속을 중시하는 성향이 나타나므로 발표 전후의 마음 상태도 같은 것으로 읽는다.	×	성향의 유지와 심리의 변화는 공존할 수 있다.
④	합격이라는 큰 사건을 겪었기 때문에 성격의 변화 여부는 결과에서 판단한다.	×	사건의 크기나 결과보다 가치관과 지속적 선택의 전후를 비교해야 한다.

A13 정답 ①

관련 개념: E02 · E06 · 문제로 돌아가기

근거 문장: “상윤은 어린 시절에도, 노인이 된 뒤에도 손해를 감수하며 사실을 밝히는 성격을 지킨다.”

판단: 성격 변화 여부는 서술 배열과 나누어 판단한다.

선지	선택지 내용	진술 판단	해설
①	노년을 먼저 들려준 서술 순서와 별개로 사실을 밝히는 정직한 핵심 성격은 유지된다.	○	노년과 어린 시절 모두 사실을 밝히는 성격이다.
②	노년을 먼저 보이고 어린 시절을 뒤에서 밝혔으므로 두 시기를 거치는 동안 성격도 다른 방향으로 변했다고 본다.	×	정보를 보여 주는 순서와 인물의 성격 변화는 별개다.
③	정직함을 유지하므로 노년보다 어린 시절을 먼저 서술한 구성으로 판단한다.	×	성격의 유지로 사건 배열을 거꾸로 판단했다.
④	노년과 어린 시절이 교차하므로 핵심 성격이 서로 다른 두 인물로 나뉜다.	×	나이가 다른 같은 인물의 모습을 보여 준 것이며 성격은 유지된다.

A14 정답 ③

관련 개념: E07 · 문제로 돌아가기

근거 문장: “실수할까 두려웠지만, 잘못된 수치를 바로잡겠다며 자료를 들고 회의장 앞으로 나갔다.”

판단: 불안한 심리와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가 공존한다.

선지	선택지 내용	진술 판단	해설
①	심리: 불안 / 태도: 실수를 피하려는 소극적 회피	×	불안하지만 수치를 바로잡으러 직접 나서므로 회피가 아니다.
②	심리: 자신감 / 태도: 적극적인 문제 해결	×	행동은 적극적이지만 심리는 실수할까 두렵다고 제시된다.
③	심리: 발표 실수를 걱정하는 불안 / 태도: 수치를 바로잡으려는 적극적인 문제 해결	○	두려움은 불안, 앞으로 나가는 행동은 해결에 나서는 태도다.
④	심리: 안도 / 태도: 드러난 문제를 받아들이는 수용	×	아직 발표 전 불안이며 잘못된 수치를 적극적으로 고치려 한다.

A15 정답 ②

관련 개념: E07 · 문제로 돌아가기

근거 문장: “그는 책임을 피하지 않고 동료에게 사실을 알린 뒤 복구 방법을 찾았다.”

판단: 당황을 회피의 태도로 바꾸어 판단하면 안 된다.

선지	선택지 내용	진술 판단	해설
①	평소 의견을 차분히 듣는 데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하는 성향이 보인다.	○	평소의 반복적 자세가 지속적인 특성의 근거다.
②	당황한 심리에 비추어 문제 해결을 뒤로 미루는 태도를 읽을 수 있다.	×	부정 발문 정답. 당황했어도 즉시 사실을 알리고 복구를 찾았으므로 미루지 않았다.
③	실수로 자료가 사라진 직후에는 예상 밖 상황에 당황한 마음이 드러난다.	○	그 상황의 마음 상태가 직접 제시되었다.
④	동료에게 사실을 알리고 복구를 찾는 데서 책임 있게 대응하는 태도가 보인다.	○	잘못을 피하지 않고 해결에 나서는 행동과 일치한다.

A16 정답 ③

관련 개념: E07 · E09 · 문제로 돌아가기

근거 문장: “쥐고 있던 손수건을 천천히 펴고 길게 숨을 내쉬었다.”

판단: 무표정이어도 행동은 안도의 단서가 된다.

선지	선택지 내용	진술 판단	해설
①	변하지 않은 얼굴 표정에서 동생의 결과에 무관심한 태도를 짐작한다.	×	무표정만으로 감정을 판단하며 뒤의 행동을 놓쳤다.
②	손수건을 펴는 행동에서 동생의 합격을 못마땅해하는 마음을 읽는다.	×	이 상황의 행동은 긴장이 풀린 단서이며 불만의 근거는 없다.
③	무표정과 함께 손수건을 펴고 숨을 내쉬는 행동을 읽어 안도하는 마음을 짐작한다.	○	이름을 확인한 뒤 손수건을 펴고 길게 숨을 내쉬는 행동이 근거다.
④	명단을 확인한 뒤 표정을 바꾸지 않고 길게 숨을 내쉬므로 기대와 다른 결과를 받아들인 낙담으로 읽을 수 있다.	×	동생 이름을 확인한 뒤의 행동으로서 낙담보다 안도의 문맥이다.

A17 정답 ④

관련 개념: E08 · E09 · 문제로 돌아가기

근거 문장: “정민은 작은 이익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이었다.”

판단: 서술자가 성격에 이름을 붙여 직접 알려 준다.

선지	선택지 내용	진술 판단	해설
①	㉡	×	돈을 돌려주는 행동에서 성격을 짐작하게 한다.
②	㉢	×	주변 인물의 반응을 통해 신뢰받음을 짐작하게 한다.
③	㉣	×	인물의 대사이지 서술자가 성격을 직접 설명한 말은 아니다.
④	㉠	○	서술자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성격이라고 설명한다.

A18 정답 ④

관련 개념: E08 · E09 · 문제로 돌아가기

근거 문장: “승우는 낯선 일을 앞두면 쉽게 겁을 먹었다.”

판단: 특성의 직접 설명과 지원서를 도로 넣는 행동 단서를 구별한다.

선지	선택지 내용	진술 판단	해설
①	(가)는 겁내는 장면을 보여 주고 (나)는 망설이는 성격을 직접 풀이한다.	×	(가)는 특성 설명이고 (나)는 행동 단서이므로 구별을 뒤집었다.
②	(나)는 인물의 말 대신 행동만 제시하므로 마음을 읽을 단서가 부족하다.	×	심리는 대사 외의 행동으로도 짐작할 수 있다.
③	두 문장은 인물 자신의 대사가 아니라 서술자가 인물의 특성과 행동을 적어 전달했으므로 같은 직접 제시로 묶을 수 있다.	×	서술자가 적었는지가 아니라 정보를 설명하는지 행동으로 보여 주는지가 기준이다.
④	(가)는 겁내는 특성을 직접 설명하고 (나)는 지원서를 다시 넣는 행동으로 망설임을 보인다.	○	성격을 설명한 문장과 독자가 행동으로 짐작하는 문장을 구별했다.

A19 정답 ②

관련 개념: E09 · 문제로 돌아가기

근거 문장: “자신은 가방으로 머리를 가리고 동생의 걸음에 맞추어 천천히 걸었다.”

판단: 이 상황의 배려는 읽되 평생의 성격이나 전후 변화로 확대하지 않는다.

선지	선택지 내용	진술 판단	해설
①	우산을 건네는 행동은 새 물건에 집착하지 않는 평소 성격을 설명한다.	×	상황 속 행동에서 평소의 물건 선호를 확정할 수 없고 직접 설명도 아니다.
②	우산을 건네고 걸음을 맞추는 행동에서 비를 맞는 동생을 배려하는 태도가 드러난다.	○	우산을 주고 걸음을 맞추는 행동이 배려를 보여 준다.
③	걸음을 늦추는 행동에서 동생을 기다리기 싫어하는 심리를 읽을 수 있다.	×	동생에게 맞추는 행동에 짜증·거부의 근거를 덧붙였다.
④	동생을 챙기는 행동으로 보아 이전보다 이타적인 성격으로 변한 듯하다.	×	변화 전의 성격은 제시되지 않았다.

A20 정답 ②

관련 개념: E09 · 문제로 돌아가기

근거 문장: “봉투를 책 아래에 밀어 넣었다.”

판단: 발소리에 봉투를 숨기는 행동에서 마음을 짐작한다.

선지	선택지 내용	진술 판단	해설
①	봉투를 여러 번 만지는 행동이 불안한 성격을 직접 풀이한 설명이다.	×	행동을 제시한 것이지 서술자가 성격을 설명한 것은 아니다.
②	봉투를 뜯지 못하다가 발소리에 감추는 행동이 망설임과 숨기려는 마음의 단서가 된다.	○	봉투를 만지작거리다 발소리에 감추는 행동을 연결한 판단이다.
③	유라가 봉투를 만지기만 하다가 발소리에 책 아래로 감추는 행동으로 바꾸었으므로 핵심 가치관도 달라졌다고 본다.	×	한 장면의 행동 변화로 가치관 변화를 정할 수 없다.
④	발소리를 듣고 감춘 데서 봉투를 가져온 사람을 원망하는 마음을 읽는다.	×	숨기려는 마음은 짐작해도 봉투를 준 사람에 대한 원망은 근거가 없다.

A21 정답 ④

관련 개념: E10 · 문제로 돌아가기

근거 문장: “축하 편지를 서랍 깊숙이 밀어 넣고 한동안 꺼내지 않았다.”

판단: 무관심하다는 발언을 뒤의 행동과 대조한다.

선지	선택지 내용	진술 판단	해설
①	상을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편지는 마음의 변화와 관련이 적다.	×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여 상반된 행동의 단서를 무시했다.
②	웃는 얼굴을 보여 주었으므로 친구를 축하하는 마음이 행동과 일치한다.	×	뒤의 편지 처리까지 대조해야 하며 웃음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③	수상 소식 뒤 축하 편지를 깊숙이 넣어 간직했으므로 친구와의 관계를 이전보다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읽는다.	×	깊숙이 넣어 꺼내지 않는 문맥을 단순한 소중한 보관으로 바꾸었다.
④	상관없다는 발언과 축하 편지를 감추는 행동의 차이에서 마음의 불편함을 짐작한다.	○	무관심하다는 말과 축하 편지를 감추는 행동을 대조한다.

A22 정답 ②

관련 개념: E08 · E09 · E10 · 문제로 돌아가기

근거 문장: “윤호는 자신의 실수가 드러날까 몹시 초조했다.”

판단: 직접 설명에 더해 책상을 가리는 행동도 마음을 드러낸다.

선지	선택지 내용	진술 판단	해설
①	초조함을 말해 주었으므로 뒤의 행동도 심리를 직접 설명하는 방식이다.	×	행동을 통해 짐작하게 하는 제시는 직접 설명과 구별한다.
②	초조함을 서술자가 직접 설명하고 책상 위를 가리는 행동으로도 그 심리를 드러낸다.	○	첫 문장은 초조함을 설명하고 뒤 문장은 이를 보여 주는 행동이다.
③	친구의 행동이 있으므로 윤호의 심리는 주변 인물의 평가로만 드러난다.	×	친구의 평가 발언은 없고 서술자의 설명과 윤호의 행동이 있다.
④	의자를 당기는 장면이 있으므로 심리 설명 없이 간접 제시로 이루어져 있다.	×	첫 문장에 초조함을 직접 설명한 부분이 있다.

A23 정답 ③

관련 개념: E11 · 문제로 돌아가기

근거 문장: “아이들은 고민이 생기면 할머니를 찾아와 오래 이야기를 나눈다.”

판단: 이름의 생략이 관계 단절을 뜻한다고 할 수 없다.

선지	선택지 내용	진술 판단	해설
①	이름 대신 호칭만 사용하는 방식으로 인물을 제시하고 있다.	○	서술에서 끝까지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는 내용과 일치한다.
②	생일을 기억하고 고민을 나누는 행동에서 친밀한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	이름의 생략과 활발한 소통은 함께 성립한다.
③	이름을 생략한 방식에서 공동체의 관계가 멀어진 모습을 읽을 수 있다.	×	부정 발문 정답. 이름은 없지만 고민을 나누는 친밀한 관계가 제시된다.
④	이름의 생략이 어떤 효과를 내는지는 이웃과의 관계를 함께 보아야 한다.	○	익명성의 기능을 문맥에서 판단하는 원칙이다.

A24 정답 ①

관련 개념: E11 · 문제로 돌아가기

근거 문장: “자기 몫에는 손대지 못하게 했다.”

판단: 호칭의 의미를 행동으로 확인한다.

선지	선택지 내용	진술 판단	해설
①	몫을 챙긴다는 호칭의 뜻과 품삯에서 자기 몫을 먼저 지키려는 행동이 연결된다.	○	몫을 먼저 챙기는 행동이 이름에 담긴 특성을 보여 준다.
②	별명으로 부르므로 개인의 성격보다 이름을 감춘 익명성에 초점을 둔다.	×	이 문맥의 핵심은 호칭에 담긴 특성과 행동의 연결이다. 별명 사용만으로 익명성 효과를 정하지 않는다.
③	여러 사람이 같은 별명으로 부르고 그도 그 뜻에 맞게 행동하므로 공동 작업자들의 공통 성격을 대표한다.	×	여럿의 호칭 사용은 이 인물이 집단을 대표한다는 증거가 아니다.
④	사람들이 붙인 호칭이므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행동을 긍정하는 듯하다.	×	호칭의 존재만으로 작품의 긍정적 평가를 추론할 수 없다.

A25 정답 ④

관련 개념: E12 · 문제로 돌아가기

근거 문장: “직원들이 다시 길을 안내하느라 공연 시작이 늦어졌다.”

판단: 잘못 모인 관객을 재안내하는 과정이 지연으로 연결된다.

선지	선택지 내용	진술 판단	해설
①	직원들이 관객을 다시 안내한 일이 관객이 예전 입구에 몰린 처음 원인이다.	×	관객이 예전 입구에 몰린 뒤 직원들이 다시 안내했다. 재안내는 혼란에 대한 대응이므로 관객이 처음 잘못 모인 원인이 아니다.
②	관객이 예전 입구에 모였기 때문에 유민이 안내판을 창고에 두게 되었다.	×	선택과 결과의 방향을 뒤집었다.
③	직원의 길 안내로 문제가 풀렸으므로 미설치와 공연 지연은 별개로 읽는다.	×	지연은 혼란을 수습하며 생긴 결과로 미설치와 연결된다.
④	창고에 안내판을 둔 선택이 관객의 입구 혼란을 일으키고 재안내 과정에서 공연이 지연되었다.	○	새 입구 안내가 없어 예전 입구에 모이고 재안내로 지연되었다.

A26 정답 ②

관련 개념: E12 · 문제로 돌아가기

근거 문장: “잠시 뒤 집 안의 전등이 꺼졌다.”

판단: 뒤라는 말은 시간 순서이며 소등의 원인은 미제시이다.

선지	선택지 내용	진술 판단	해설
①	준영이 문 앞에서 기다렸으므로 집 안 사람과의 대립이 시작되었다고 본다.	×	기다림만으로 서로의 목표 충돌을 알 수 없다.
②	초인종을 누른 뒤 전등이 꺼졌다는 순서가 드러난다.	○	시간 순서는 명시되지만 소등 원인은 제시되지 않았다.
③	초인종 직후 전등이 꺼졌으므로 방문을 꺼린 집 안 사람의 반응으로 읽는다.	×	시간의 인접성을 행동 원인과 의도로 확대했다.
④	소등 뒤 기다리는 데서 준영이 집 안 사람에게 불만을 품었다고 짐작한다.	×	기다림의 이유나 불만이 제시되지 않았다.

A27 정답 ④

관련 개념: E13 · E15 · 문제로 돌아가기

근거 문장: “두 사람은 같은 시간에 양보 없이 공간을 사용하겠다고 주장한다.”

판단: 목적 차이가 같은 시간의 실제 충돌로 이어진다.

선지	선택지 내용	진술 판단	해설
①	두 사람이 전시실을 서로 다른 목적에 사용하려고 생각한다.	×	목적 차이만으로는 부족하며 같은 시간에 양보하지 않는 충돌이 핵심이다.
②	세아는 조용한 공간을 바라며 북 연주보다 독서 활동을 좋아한다.	×	한 인물의 선호만으로 상호 대립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③	도윤은 연주를 중요하게 생각해 전시실의 필요성을 느끼는 듯하다.	×	한쪽의 필요만 설명해 세아와 충돌하는 관계가 빠졌다.
④	같은 시간의 공간에서 조용한 독서와 북 연주를 각각 양보 없이 하려는 목표가 충돌한다.	○	함께 하기 어려운 사용 방식이 실제 주장에서 충돌한다.

이루려는 것	가로막는 것	충돌이 드러난 근거
조용히 독서하려는 세아	북 연주를 하려는 도윤	같은 시간에 양보 없이 공간을 쓰겠다고 함

A28 정답 ③

관련 개념: E13 · E14 · 문제로 돌아가기

근거 문장: “떠나 일하고 싶었지만 아픈 아버지 곁에 남고 싶기도 했다.”

판단: 떠남과 머묾이 한 인물 안에서 맞선다.

선지	선택지 내용	진술 판단	해설
①	(가)는 힘든 상태이므로 걷고 싶은 마음과 쉬려는 마음의 갈등으로 읽는다.	×	걷고 싶다는 욕구나 쉴지의 선택은 제시되지 않았다.
②	(나)는 아버지를 걱정하므로 서로 다른 두 인물 사이의 갈등에 해당한다.	×	대립은 아버지와의 말다툼이 아니라 재민의 마음 안에 있다.
③	(가)는 피로, (나)는 마음속 두 방향의 충돌을 보여 준다.	○	피로 자체와 떠남·머묾의 대립을 구별한 판단이다.
④	(나)는 아직 행동을 선택하지 않았으므로 갈등이 시작되기 전의 상태이다.	×	선택 전 망설이는 마음의 충돌 자체가 내적 갈등이다.

이루려는 것	가로막는 것	충돌이 드러난 근거
떠나서 일하려는 마음	아버지 곁에 남으려는 마음	일하고 싶지만 남고 싶기도 함

A29 정답 ③

관련 개념: E14 · 문제로 돌아가기

근거 문장: “잘못을 바로잡고 싶었지만 기뻐하는 팀원들을 실망시키고 싶지는 않았다.”

판단: 잘못 공개와 팀원 보호 사이의 내적 갈등이다.

선지	선택지 내용	진술 판단	해설
①	점수 계산의 실수를 찾아낸 지은의 판단과 계산을 잘못한 대회 심판의 판단	×	지은의 마음속 두 방향 대신 지문에 없는 심판과의 대립을 만들었다.
②	우승이 취소될까 불안한 마음과 기뻐하는 팀원들이 실망할까 걱정하는 마음	×	두 표현은 모두 우승 취소의 피해를 걱정하는 같은 방향이다.
③	잘못을 공개해 점수를 바로잡으려는 마음과 팀원들의 기쁨을 지켜 주려는 마음	○	정정 욕구와 팀원을 실망시키지 않으려는 마음이 맞선다.
④	팀의 우승을 기뻐하는 마음과 기쁨이 오래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	함께 성립하는 바람으로서 맞서는 두 방향이 아니다.

이루려는 것	가로막는 것	충돌이 드러난 근거
잘못된 점수를 바로잡으려 함	팀원의 기쁨을 지켜 주려 함	알리고 싶지만 실망시키고 싶지 않음

A30 정답 ①

관련 개념: E14 · 문제로 돌아가기

근거 문장: “결과가 발표된다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판단: 불안한 심리만 확인되므로 마음속의 대립을 더 알아야 한다.

선지	선택지 내용	진술 판단	해설
①	마음 안에서 서로 맞서는 욕구나 판단이 무엇인지	○	불안의 크기와 별개로 대립하는 마음을 확인해야 한다.
②	민규의 걱정이 잠을 못 이룰 정도로 크다는 사실	×	심리의 강도만으로 대립하는 두 방향을 알 수 없다.
③	민규와 같은 결과를 기다리는 경쟁 상대가 있는지	×	외부 상대의 존재만으로 내적 갈등을 판단할 수 없다.

선지	선택지 내용	진술 판단	해설
④	결과 발표 시간이 늦어져 기다림이 길어진 것인지	×	기다림의 조건을 설명해도 마음속 충돌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이루려는 것	가로막는 것	충돌이 드러난 근거
주어진 문장에서는 미확인	맞서는 다른 욕구·판단도 미확인	걱정과 불면만 제시되어 내적 대립은 추가 확인 필요

A31 정답 ③

관련 개념: E15 · 문제로 돌아가기

근거 문장: “주희는 출입문 앞을 막아섰다.”

판단: 보존과 폐기 목표가 서로의 행동을 막는다.

선지	선택지 내용	진술 판단	해설
①	두 사람이 라디오의 앞으로의 쓰임에 서로 다른 생각을 가졌다는 점	×	생각 차이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로 서로의 행동을 막는 관계가 핵심이다.
②	동생이 라디오를 고치는 데 드는 돈을 아깝게 생각한다는 점	×	한쪽의 행동 이유만으로 대립하는 양쪽의 관계를 다 밝히지 못한다.
③	보존하려는 주희가 버리려는 동생의 행동을 가로막았다는 점	○	서로의 목표가 행동으로 충돌하는 관계가 제시되었다.
④	주희가 라디오를 수리해 할머니에게 돌려드리려 한다는 점	×	주희의 목표는 설명하지만 동생과의 충돌까지는 담지 못한다.

이루려는 것	가로막는 것	충돌이 드러난 근거
라디오를 고쳐 돌려드리려는 주희	버리려는 동생	동생이 들고 나가려 하자 주희가 문을 막음

A32 정답 ④

관련 개념: E16 · 문제로 돌아가기

근거 문장: “땅을 가진 사람만 의견을 말할 수 있었다.”

판단: 개인적 원한이 아니라 발언권을 나누는 사회 규칙과 맞선다.

선지	선택지 내용	진술 판단	해설
①	땅 주인과 수빈 사이에서 오래 쌓인 개인적 감정	×	기존의 사적 원한은 제시되지 않았고 대립 이유는 회의 규칙이다.
②	집을 빌려 사는 형편을 바꾸려는 수빈의 개인적 욕구	×	목표는 집 소유가 아니라 주민의 발언 기회 확대이다.
③	우물을 공동으로 쓰는 주민 사이의 물 부족 문제	×	물의 양이나 부족 문제는 제시되지 않았다.
④	땅의 소유 여부로 발언 기회를 나누는 사회적 규칙	○	개인 감정보다 주민의 기회를 제한하는 규칙과 대립한다.

이루려는 것	가로막는 것	충돌이 드러난 근거
주민 모두에게 발언권을 주려는 수빈	토지 소유자만 발언하게 하는 규칙	땅 주인들이 기존 규칙을 내세워 거부함

A33 정답 ②

관련 개념: E16 · E18 · 문제로 돌아가기

근거 문장: “휴식 시간에도 작업대 곁을 떠날 수 없다는 규칙이 있었다.”

판단: 관리인과의 직접 대립 아래 일터 규칙이라는 조건이 있다.

선지	선택지 내용	진술 판단	해설
①	관리인이 문을 막으므로 규칙보다 두 사람의 개인적인 감정이 대립의 원인이다.	×	관리인은 규칙과 작업 지시 필요를 내세우며 개인 감정이 원인이라는 근거는 없다.
②	관리인과 대립하면서 휴식을 제한하는 일터 규칙에도 맞선다.	○	직접 상대와 근본 규칙이 함께 드러난다.
③	밖에 나가려는 마음과 규칙을 지키려는 마음이 소희 안에서 맞서는 장면이다.	×	소희가 규칙을 지키려 망설인다는 내용은 없다.

선지	선택지 내용	진술 판단	해설
④	출입문이 닫혔기 때문에 자연환경이 소희의 목표 실현을 가로막는 장면이다.	×	문은 규칙을 집행하는 관리인이 막은 것으로 자연환경과의 대립이 아니다.

이루려는 것	가로막는 것	충돌이 드러난 근거
휴식 시간에 밖으로 나가려는 소희	관리인의 거부와 작업대 이탈 금지 규칙	관리인이 작업 지시 필요를 들어 문을 막음

A34 정답 ④

관련 개념: E17 · 문제로 돌아가기

근거 문장: “거센 물결이 밀어내는 배를 항구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밧줄을 잡고 버텼다.”

판단: 배를 지키려는 행동과 물결의 힘이 맞선다.

선지	선택지 내용	진술 판단	해설
①	㉠	×	바람의 묘사만 있고 인물이 맞서는 목표는 없다.
②	㉢	×	노을의 배경 묘사만으로 대립을 확인할 수 없다.
③	㉣	×	여행을 떠올리는 계기이지 자연에 맞서는 장면이 아니다.
④	㉡	○	항구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어민과 밀어내는 파도의 힘이 맞선다.

이루려는 것	가로막는 것	충돌이 드러난 근거
배를 항구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어민	배를 밀어내는 거센 물결	밧줄을 잡고 물결의 힘에 맞서 버팀

A35 정답 ④

관련 개념: E17 · 문제로 돌아가기

근거 문장: “라온은 그 아이를 구하려 예언을 깨뜨릴 방법을 찾아 나섰다.”

판단: 예언의 존재에 더해 이를 바꾸려는 대립을 확인한다.

선지	선택지 내용	진술 판단	해설
①	사람들이 아이에 관한 예언을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믿는다는 점	×	운명적 조건만 설명하며 이에 맞서는 인물의 방향은 빠졌다.
②	라온이 아이를 구할 방법을 찾기 위해 살던 곳을 떠나려 한다는 점	×	이동 자체보다 운명적 조건에 맞선다는 관계가 필요하다. 살던 곳을 떠난다는 구체적 설정도 없다.
③	예언에서 탑이 아이가 사라질 장소로 미리 정해져 있다는 점	×	장소를 제시한 사실만으로 인물의 대립까지 확인되지는 않는다.
④	바꿀 수 없다고 여기는 예언을 라온이 깨뜨리려 한다는 점	○	운명적 조건과 이를 바꾸려는 인물의 행동이 함께 제시된다.

이루려는 것	가로막는 것	충돌이 드러난 근거
아이를 구하려는 라온	아이의 소멸을 정한 예언	예언을 깨뜨릴 방법을 찾아 나섬

A36 정답 ③

관련 개념: E17 · E18 · 문제로 돌아가기

근거 문장: “주민에게 가고 싶었지만 동료들의 안전을 위해 지금은 물러서야 한다고도 생각했다.”

판단: 바깥 산불과의 대립 속에 구조와 안전 사이의 내적 갈등이 있다.

선지	선택지 내용	진술 판단	해설
①	외적: 채린과 동료들의 대립 / 내적: 구조하러 가는 길에서 산불을 두려워하는 마음	×	동료들과의 대립은 제시되지 않았고 두려움 하나는 내적 갈등 전체가 아니다.
②	외적: 길을 막는 산불 / 내적: 주민에게 가는 도중 산불이 거세질까 걱정하는 마음	×	외적 갈등은 맞지만 한 방향의 걱정만으로 내적 갈등을 설명하지 못한다.
③	외적: 길을 막는 산불 / 내적: 구조에 나서려는 마음과 동료의 안전을 지키려는 판단	○	자연과의 대립, 한 사람 안의 대립을 구별했다.

선지	선택지 내용	진술 판단	해설
④	외적: 구조와 철수 사이의 망설임 / 내적: 마을로 가는 길을 막고 있는 산불의 위험	×	마음속 충돌과 바깥의 힘을 뒤바꾸었다.

이루려는 것	가로막는 것	충돌이 드러난 근거
주민에게 가려는 구조 대원 — 외적	길을 막는 산불	산불 때문에 주민에게 바로 갈 수 없음
구조에 나서려는 마음 — 내적	동료의 안전을 지키려는 판단	가고 싶지만 물러서야 한다고 생각함

A37 정답 ①

관련 개념: E19 · 문제로 돌아가기

근거 문장: “다른 공방은 더는 협의하지 않겠다며 사용료 지급을 거부했다.”

판단: 사용 방해 뒤에 해결 통로까지 닫히며 갈등이 심화된다.

선지	선택지 내용	진술 판단	해설
①	사용 순서의 협의가 실제 방해와 협의 거부로 바뀌어 해결이 어려워졌다.	○	가마 봉쇄와 지급 거부로 대립이 깊어졌다.
②	상대 작품을 밖에 내놓아 공간을 나누었으므로 사용 순서의 갈등이 풀렸다.	×	상대의 사용을 막은 것이지 양측이 합의한 공간 분배가 아니다.
③	협의가 끝났으므로 당사자들이 각자의 요구를 조정하는 단계로 옮겨 갔다.	×	협의를 거부했으므로 조정이 진행된 것이 아니다.
④	사용료를 내지 않기로 한 선택으로 가마 사용 문제를 양측이 정리했다.	×	한쪽의 지급 거부는 상대와의 합의나 해결이 아니다.

A38 정답 ②

관련 개념: E20 · 문제로 돌아가기

근거 문장: “내일 다시 나와 자기 경계선을 주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판단: 다툼의 일시적 중단이며 경계 대립의 해소는 아니다.

선지	선택지 내용	진술 판단	해설
①	각자 집으로 돌아갔으므로 서로의 경계를 인정하는 타협이 이루어졌다.	×	집으로 피한 행동에 합의의 뜻을 덧붙였다.
②	비 때문에 다툼은 멈췄지만 다음 날에도 각자의 경계선을 주장하려 하므로 원인은 남아 있다.	○	다음 날도 각자의 경계 주장을 이어 가려 하므로 원인이 남아 있다.

선지	선택지 내용	진술 판단	해설
③	다음 날 이야기하기로 했으므로 경계 문제는 풀리고 만날 날짜만 남았다.	×	다음 날 경계 문제를 다시 이야기하기로 했을 뿐, 경계에 대한 대립이 풀렸다는 내용은 없다.
④	비를 함께 피하는 행동을 보이므로 경계에 관한 이해관계도 가까워졌다.	×	같은 비에 반응했다는 사실로 요구가 가까워졌다고 할 수 없다.

A39 정답 ③

관련 개념: E20 · 문제로 돌아가기

근거 문장: “수리비를 어느 동아리가 낼지를 두고 여전히 대립했다.”

판단: 요일 합의를 남은 비용 문제의 해결로 확대하지 않는다.

선지	선택지 내용	진술 판단	해설
①	수리비 논의가 남았으므로 사용 요일도 아직 합의되지 않은 상태로 본다.	×	한 문제의 미해결을 이미 합의한 다른 문제로 확대했다.
②	요일을 나누어 쓰기로 했으므로 수리비도 같은 비율로 나누기로 한 듯하다.	×	요일 합의를 비용 합의로 확대할 근거가 없다.
③	사용 요일은 합의했지만 수리비 부담에는 대립이 남아 있다.	○	해결된 문제와 남은 문제를 구별한 판단이다.
④	수리비 문제로 대립하므로 사용 요일을 나누었던 합의는 취소된 상태이다.	×	다른 쟁점의 대립이 기존 합의의 취소를 뜻하지 않는다.

A40 정답 ③

관련 개념: E21 · 문제로 돌아가기

근거 문장: “유일한 출구 앞에는 여전히 추격자의 동료가 서 있었고”

판단: 숨을 돌리는 이완과 계속되는 대립을 함께 읽는다.

선지	선택지 내용	진술 판단	해설
①	발소리가 멀어진 것은 추격자와의 대립을 끝내고 탈출에 성공한 결과이다.	×	동료가 출구를 막고 있으므로 탈출 성공은 아니다.
②	출구가 막혀 있으므로 숨을 돌리는 순간에도 긴장의 정도는 이전과 같다.	×	남은 대립이 있어도 당장의 안전감으로 긴장은 낮아질 수 있다.

선지	선택지 내용	진술 판단	해설
③	잠시 숨을 돌리는 이완 속에도 출구를 막는 위험과 대립은 남아 있다.	○	위험의 일시적 감소와 해소 여부를 구별했다.
④	잠깐 안전해진 결과 추격자가 출구의 봉쇄를 풀어 주려는 의도를 읽을 수 있다.	×	추격자의 의도나 봉쇄 해제의 근거는 없다.

A41 예시 답

관련 개념: E14 · E18 · 문제로 돌아가기

자신의 잘못을 사실대로 알리려는 마음 / 친구들의 발표 기회를 지켜 주려는 마음

답에 들어갈 내용

- 잘못을 인정·공개하려는 방향을 제시한다.
- 친구들의 발표 기회 상실을 막으려는 방향을 제시한다.

오답 점검: '불안하다 / 슬프다'처럼 정서만 나열하면 맞서는 두 마음을 밝힌 답이 아닙니다. '말하고 싶음 / 친구들이 피해 볼까 말하지 못함'도 두 방향이 드러나면 인정합니다.

A42 예시 답

관련 개념: E16 · E18 · 문제로 돌아가기

인물과 사회의 갈등이다. 나린이 거주 기간에 따라 판매 기회를 제한하는 관습에 맞서기 때문이다.

답에 들어갈 내용

- 인물과 사회의 갈등이라고 쓴다.
- 오래 살았는지에 따라 기회를 제한하는 관습과 이에 대한 나린의 요구를 연결한다.

오답 점검: 사람과 다툰다고만 쓰면 근본 조건이 빠집니다. 장터의 책임자가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특정 개인과의 다툼을 만들어 쓰지 않습니다.

A43 예시 답

관련 개념: E19 · E20 · E21 · 문제로 돌아가기

해결됨: 상자를 놓을 장소 / 남아 있음: 젖은 책의 손해를 누가 부담할지

답에 들어갈 내용

- 장소 문제에 합의했다는 내용을 쓴다.
- 손해 부담 문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쓴다.

오답 점검: '모든 갈등이 해소됨'은 범위를 지나치게 넓힌 답입니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음'은 장소 합의를 놓친 답입니다.

A44 예시 답

관련 개념: E22 · 문제로 돌아가기

약속하지 않은 만남은 우연하지만, 두 사람이 같은 요일에 같은 시장을 자주 찾았다는 조건 때문에 만남이 일어날 법하여 개연성도 있다.

답에 들어갈 내용

- 약속 없이 만났다는 우연한 연결을 인정한다.
- 같은 요일·같은 시장의 이용 습관을 들어 개연성이 있음을 설명한다.

오답 점검: '늘 같은 곳에 갔으므로 반드시 만난다'는 필연성의 과장입니다. 우연성과 개연성은 서로를 반드시 배제하지 않습니다.

A45 정답 ②

관련 개념: E03 · E04 · 문제로 돌아가기

근거 문장: ① "사람부터 들일 수는 없지. 무너지기라도 하면 어쩌겠니."

판단: 성태의 거부는 안전 이유를 지니며 반동 역할을 악의로 해석하지 않는다.

선지	선택지 내용	진술 판단	해설
①	성태가 공연 계획을 막으므로 주민의 안전보다 건물 처분을 중시하는 인물이다.	×	성태의 안전 걱정과 악기 보호를 무시했다.
②	해원은 개설을 이끌고 성태는 안전을 이유로 실행을 막는다.	○	①의 추진과 거부를 중심으로 두 역할을 판단한다.
③	은길이 보강 위치를 알려 주었으므로 그 뒤 공연 준비를 이끄는 중심인물이다.	×	단서를 준 것과 이야기의 중심을 차지하는 것은 다르다.
④	해원이 짐작한 대로 성태는 낡은 건물을 없애려고 핑계를 댄 인물이다.	×	해원의 생각을 확인된 사실로 옮겼다. 악기를 옮기고 덮어 주는 행동도 함께 봐야 한다.

A46 정답 ①

관련 개념: E14 · E18 · 문제로 돌아가기

근거 문장: ③ "공연을 미루고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도 지워지지 않았다."

판단: 약속한 개막과 안전을 위한 연기가 해원 안에서 맞선다.

선지	선택지 내용	진술 판단	해설
①	약속대로 공연하려는 마음과 연기해 안전을 확인하려는 판단	○	③에서 예정대로와 연기 사이에 망설이는 두 방향이다.

선지	선택지 내용	진술 판단	해설
②	공연을 열고 싶은 마음과 성태에게 핑계를 댄다고 원망하는 마음	×	원망은 공연 추진과 반대되는 선택 방향이 아니라 상대에 대한 반응이다.
③	연기를 주민들에게 알리려는 판단과 보강 비용을 모으려는 계획	×	안전을 확인하려는 같은 방향의 행동들로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
④	공연을 추진하는 해원의 요구와 열쇠를 내주지 않는 성태의 거부	×	이는 인물 간 외적 대립이며 해원 안의 두 마음이 아니다.

이루려는 것	가로막는 것	충돌이 드러난 근거
예정대로 공연해 약속을 지키려 함	연기해 안전을 확인하려 함	③ 예정대로와 연기를 나란히 적음

A47 정답 ④

관련 개념: E12 · E20 · 문제로 돌아가기

근거 문장: ④ “성태는 보강이 확인되자 열쇠를 건넸다.”

판단: 진단·연기·보강·사용 허용의 인과를 읽는다.

선지	선택지 내용	진술 판단	해설
①	성태가 악기를 옮긴 일로 안전이 확인되어 해원은 예정한 날짜에 공연을 열었다.	×	악기 보호와 천장 안전은 별개이며 해원은 공연을 연기했다.
②	해원이 공연 날짜를 적어 둔 일 때문에 천장 보강의 필요가 새로 생겨났다.	×	천장 약화는 전단과 무관하게 먼저 존재한 조건이다.
③	성태가 열쇠를 주기로 한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 은길의 진단을 받게 되었다.	×	진단과 보강 확인 뒤에 열쇠를 받았으므로 순서와 관계를 뒤집었다.
④	은길의 진단을 계기로 연기·보강을 선택했고 안전 확인 뒤 사용이 허용되었다.	○	④가 정보, 선택, 결과의 관계를 보여 준다.

A48 정답 ①

관련 개념: E20 · E21 · 문제로 돌아가기

근거 문장: ⑤ “다음 달 임대료를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는 결정하지 못했다.”

판단: 협력 행동과 비용 합의 여부를 구별한다.

선지	선택지 내용	진술 판단	해설
①	함께 객석을 정리하는 모습은 임대료 부담에도 타협했다는 근거이다.	×	부정 발문 정답. 비용 문제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명시한다.
②	보강 확인 뒤 열쇠를 준 행동은 안전 때문에 사용을 막던 대립이 풀린 근거이다.	○	안전 조건을 충족하여 사용이 허용되었다.
③	공연이 열린 뒤에도 다음 달 임대료 부담을 놓고 논의할 문제는 남아 있다.	○	⑤의 계산서와 회의 일정은 미결 문제를 보여 준다.
④	함께 정리하는 행동과 임대료의 합의 여부는 서로 구별해서 판단해야 한다.	○	협력과 특정 문제의 합의는 자동으로 같지 않다.

A49 정답 ③

관련 개념: E11 · 문제로 돌아가기

근거 문장: ① “누군가 손을 다쳐도 그날 처리한 수량부터 물었다.”

판단: 이름을 아는 서술과 별개로 책임자의 번호 호칭은 생산량 우선 태도에 연결된다.

선지	선택지 내용	진술 판단	해설
①	번호로 불리는 인물들이므로 동료 사이에도 서로의 사정을 모르는 단절이 드러난다.	×	동료들은 도움을 주고 함께 기록하므로 단절로 일반화할 수 없다.
②	끝에서 동료가 이름을 부르므로 앞의 번호 호칭은 작품의 의미와 관계가 적어진다.	×	마지막의 이름 호명은 앞의 번호 호명과 대비되며 앞의 의미를 없애지 않는다.
③	서술은 이름을 밝히지만 책임자의 번호 호명은 사람을 수량으로 보는 태도를 드러낸다.	○	서술자는 이름을 밝히지만 작품 속 책임자는 번호로 부른다. 수량 우선 문맥과 연결되는 호칭 방식의 효과다.
④	서술자가 이름을 알려 주므로 책임자의 번호 호명도 개인의 고유성을 존중하는 표현이다.	×	서술자가 이름을 밝힌 사실로 책임자의 호칭 효과를 뒤집었다.

A50 정답 ②

관련 개념: E06 · E07 · 문제로 돌아가기

근거 문장: ⑤ “처음 만난 동료의 장갑끈도 묶어 주었다.”

판단: 첫날부터의 도움과 연결하면 핵심 배려 성향은 유지된다.

선지	선택지 내용	진술 판단	해설
①	서명 용지를 넣었다 다시 꺼냈으므로 이기적 성격에서 배려하는 성격으로 변한다.	×	고민 속 행동의 변화를 핵심 성격의 변화로 확대했다.
②	망설이는 심리가 드러나지만 동료를 배려하는 성향은 전후에 유지된다.	○	처음과 퇴근길의 장갑끈을 묶어 주는 행동이 배려의 유지 근거다.
③	일터의 규칙을 바꾸는 데 성공했으므로 다민의 핵심 성격도 달라졌다고 판단한다.	×	바깥 규칙의 변화와 인물 내부의 성격 변화는 별개다.
④	장갑끈을 묶는 행동이 앞뒤에 반복되므로 불이익을 걱정하는 마음에도 변화가 없다.	×	성향의 유지가 상황에 따른 심리 변화까지 부정하지 않는다.

A51 정답 ③

관련 개념: E16 · E18 · 문제로 돌아가기

근거 문장: ③ “자기 때문에 동료들까지 일자리를 잃을까 두려웠다.”

판단: 규칙에 맞서는 외적 갈등 속에서도 보호와 불이익 걱정이 맞선다.

선지	선택지 내용	진술 판단	해설
①	책임자와 말다툼한 일이므로 작업 중단 규칙은 갈등의 원인에서 제외하는 편이 맞다.	×	책임자는 규칙을 내세워 요구를 거부하므로 근본 조건이다.
②	동료의 부상이 걱정되므로 내적 갈등은 다친 동료와 다민이 서로 맞서는 관계이다.	×	내적 갈등은 한 인물 안의 대립이며 동료와의 대립은 제시되지 않았다.
③	규칙과 맞서면서 동료 보호와 불이익 걱정 사이에서도 망설인다.	○	②의 외적 대립과 ③의 마음속 충돌이 함께 드러난다.
④	서류를 거부당한 뒤에도 기록했으므로 동료를 지키려는 마음은 불이익 걱정과 무관하다.	×	③은 보호하려는 바람과 불이익 두려움이 동시에 영향을 줌을 보여 준다.

자료 B 갈등 지도

이루려는 것	가로막는 것	충돌이 드러난 근거
외적: 다친 동료를 지키려는 다민	작업 중단을 막는 책임자	② 다민의 중단 요구와 책임자의 규칙 제시가 맞섬
내적: 동료를 지키려는 마음	불이익에 대한 걱정	③ 용지를 넣었다가 다시 꺼내 본 일을 적음

외적 대립의 사회 조건: 정해진 시간 밖에는 작업을 멈출 수 없다는 규칙

직접 상대와 사회 조건, 마음속 충돌을 나누어 봅니다.

A52 정답 ④

관련 개념: E19 · E20 · 문제로 돌아가기

근거 문장: ⑤ “이미 다친 사람의 치료비 부담은 합의하지 못했다.”

판단: 작업 중단 규칙의 개정이 치료비 갈등까지 해결한 것은 아니다.

선지	선택지 내용	진술 판단	해설
①	④의 서류 접수 거부는 다민과 동료들이 문제를 해결할 통로를 좁힌다.	○	접수를 거부하며 대립 해결이 어려워진다.
②	⑤의 개정은 부상자가 생겨도 정해진 시간 밖에는 멈추지 못하던 조건을 바꾼다.	○	규칙 개정의 대상과 실제 변화가 맞다.
③	⑤는 치료를 받을 길이 열린 것과 이미 생긴 치료비 부담이 미결인 것을 함께 보여 준다.	○	해결된 조건과 남은 문제를 나누어 설명했다.
④	작업 중단 규칙을 고친 합의에 치료비 부담의 대립도 포함되어 풀렸다.	×	부정 발문 정답. 치료비 부담은 별도로 합의하지 못했다.

A53 정답 ①

관련 개념: E17 · E18 · 문제로 돌아가기

근거 문장: ① “이솔은 마지막 종이 울리기 전에 그 장치에 닿아 예언을 깨뜨리려 했다.”

판단: ①의 운명 극복 목표와 ②의 파도에 맞서는 행동은 서로 다른 외적 갈등이다.

선지	선택지 내용	진술 판단	해설
①	①은 예언을 깨뜨리려는 이솔과 운명의 대립이고 ②는 동굴로 가려는 이솔과 파도의 대립이다.	○	이솔의 목표가 예언 극복이며 실제 항해에서는 파도·돌풍과 충돌한다.
②	①은 이솔과 섬사람들의 직접 대립, ②는 겁나는 마음만으로 이루어진 내적 갈등이다.	×	섬사람들과의 직접 대립은 없고 ②는 자연의 힘에 맞서는 행동이다.
③	①은 기록을 믿으려는 내적 갈등, ②는 바다로 나갈지 결정하는 마음속 갈등이다.	×	①은 운명에 맞서는 목표를 세우며 ②는 출항 후 외부의 물결과 맞선다.
④	①은 출항 준비이므로 갈등 전의 상태, ②에서 파도가 등장한 뒤에야 대립이 시작된다.	×	①에서 이미 예언된 길을 바꾸려 하므로 운명과의 대립이 시작되었다.

이루려는 것	가로막는 것	충돌이 드러난 근거
예언을 깨뜨리려는 이솔 — 운명	피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예언	① 마지막 종 전에 장치에 닿으려 함
동굴로 들어가려는 이솔 — 자연	배를 바깥으로 밀어내는 파도	② 물결에 맞서 노를 저음

A54 정답 ④

관련 개념: E21 · 문제로 돌아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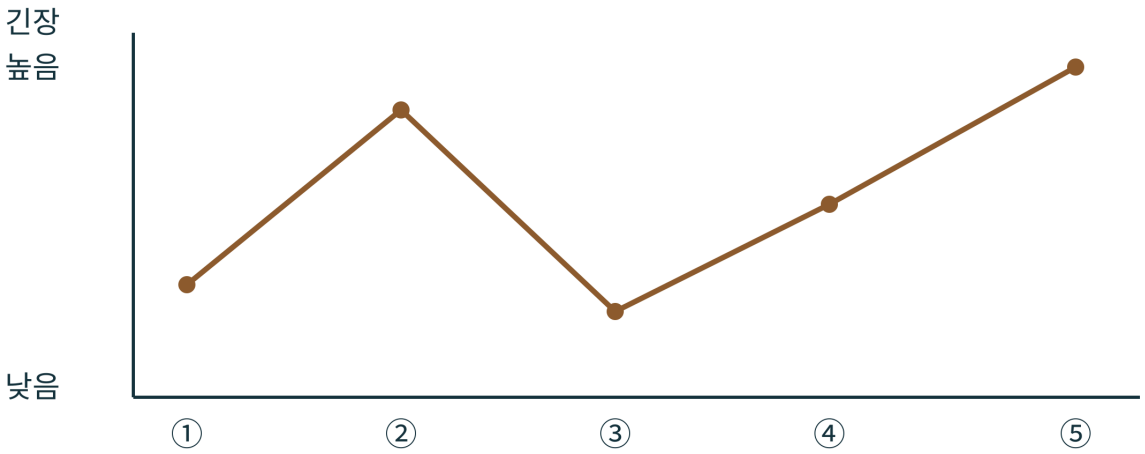
근거 문장: ③ “당장 배가 뒤집힐 위험은 줄었다.”

판단: 당장의 긴장 이완과 남은 예언·바다 문제를 구별한다.

선지	선택지 내용	진술 판단	해설
①	동굴로 들어가 예언이 이루어질 장소를 벗어났으므로 운명과의 대립도 끝난다.	×	예언이 바다 전체에서 어떻게 실현될지 미정이고 극복 여부가 제시되지 않았다.
②	물소리가 낮아졌으므로 바다도 잔잔해져 귀항에 필요한 조건을 갖춘다.	×	동굴 안에서 당장의 위험이 줄었을 뿐 바다는 계속 거칠다고 했다.

선지	선택지 내용	진술 판단	해설
③	예언의 시간이 남아 있으므로 잠시 숨을 고르는 장면에서도 긴장 정도는 같다.	×	남은 대립이 있어도 당장의 위험 감소로 긴장은 낮아질 수 있다.
④	당장 뒤집힐 위험은 줄었지만 예언과 거친 바다의 문제는 남는다.	○	동굴에서의 일시적 이완과 남은 갈등을 구별했다.

자료 C 긴장의 흐름



문단	긴장을 읽는 근거
①	예언과 출항 준비
②	돌풍·파도에 맞서 배를 저음
③	동굴에서 당장 배가 뒤집힐 위험이 줄어듦
④	바위 문이 열리지 않음
⑤	첫 경고 종·붉은 달, 결과는 미제시

갈등 해소 여부
③ 해소되지 않음(예언·거친 바다가 남음)
⑤ 결과가 제시되지 않음

범례: 선의 높낮이 = 상대적인 독해 예 / 측정값이나 유일한 곡선이 아님

긴장의 높낮이와 갈등의 해소 여부는 다른 판단입니다.

A55 정답 ①

관련 개념: E22 · 문제로 돌아가기

근거 문장: ④ “두 개의 고리를 동시에 당겨야만 열리며, 부수거나 돌아 나갈 길은 없었다.”

판단: 제시된 조건 아래 한 고리만으로 열 수 없다는 결과는 필연적이다.

선지	선택지 내용	진술 판단	해설
①	조건이 유지되는 동안 한 고리만 당겨서는 문을 열 수 없다.	○	동시에 두 고리를 당기는 필수 조건에 의해 이 결과가 정해진다.
②	밧줄을 걸 방법을 떠올렸으므로 문을 여는 데 필요한 행동도 끝난 셈이다.	×	계획을 떠올린 것과 실행을 마친 것은 다르다.
③	동굴의 문에 닿았으므로 그 너머까지 가는 사건도 그 조건에서 보장된다.	×	도착 사실만으로 문 개방과 이후 이동이 보장되지 않는다.
④	처음 문이 열리지 않았으므로 다른 방법을 써도 같은 결과가 이어질 것이다.	×	한 고리를 당긴 실패는 두 고리 동시 당김의 결과를 결정하지 않는다.

A56 정답 ④

관련 개념: E01 · E07 · E20 · E22 · 문제로 돌아가기

근거 문장: ⑤ “이야기는 이솔이 두 밧줄을 잡는 장면에서 멈춘다.”

판단: 준비된 행동과 아직 제시되지 않은 성공·실패를 구별한다.

선지	선택지 내용	진술 판단	해설
①	두 밧줄을 잡는 장면은 문을 열어 예언을 깨뜨리는 데 성공했음을 보여 준다.	×	실행 준비에서 성공의 결과로 뛰어넘었다.
②	경고 종과 붉은 달이 나타났으므로 예언대로 이솔이 바다에 삼켜졌다고 볼 수 있다.	×	경고와 달은 위험의 접근이지 예언된 결과의 실현 장면은 아니다.
③	이솔이 정해진 말을 따르지 않겠다고 하므로 실제 작가도 같은 운명을 겪었다.	×	인물의 발언을 작가의 실제 이력으로 옮길 근거가 없다.
④	맞서려는 의지는 드러나지만 문 개방과 예언 극복의 결과는 미제시이다.	○	⑤는 종이 가까워지는 상황과 실행 직전에서 끝나므로 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

A57 정답 ②

관련 개념: E22 · 문제로 돌아가기

근거 문장: ① “두 사람은 그날 만나기로 약속한 적이 없었다.”

판단: 약속 없는 우연성과 반복된 장터 방문에 따른 개연성은 공존한다.

선지	선택지 내용	진술 판단	해설
①	같은 요일에 장터를 찾아왔으므로 그 가게 앞의 만남도 조건상 필연적이다.	×	요일·장소 습관이 세부 시각과 경로의 일치를 보장하지 않는다.
②	약속 없는 만남은 우연하고, 같은 요일의 방문 습관은 만남을 그럴듯하게 한다.	○	뜻밖의 연결과 그 연결을 납득할 조건이 함께 있다.
③	약속 없이 만났으므로 앞서 제시된 방문 습관으로는 그 만남을 설명하기 어렵다.	×	우연성과 개연성을 배타적으로 보았다.
④	상인이 부품을 가져왔으므로 연지가 그날 그곳에서 기다리기로 했다고 볼 수 있다.	×	부품 보유로 사전 약속을 추론했지만 약속한 적 없다고 했다.

A58 정답 ③

관련 개념: E22 · 문제로 돌아가기

근거 문장: ② “내부의 다른 부품까지 멀쩡한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판단: 경험으로 납득할 수 있는 부분 수리와 전체 성공 보장은 다르다.

선지	선택지 내용	진술 판단	해설
①	십 년 동안 쌓은 수리 경험이 있으므로 확인하지 않은 내부 부품도 정상으로 판단한다.	×	인물의 경험과 미확인 부품의 실제 상태는 다르다.
②	상인이 맞는 크기의 톱니를 내주었으므로 연지는 그날 점검을 마쳤다고 볼 수 있다.	×	크기가 맞아도 축과 다른 부품의 점검이 필요하다.
③	경험은 축을 바로잡는 행동의 개연성을 높이지만 전체 수리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	○	익숙한 작업 능력과 아직 모르는 내부 부품 상태를 나누어 봐야 한다.
④	시계가 잠시 움직이기 시작했으므로 오랜 경험이 수리의 성공을 필연적으로 만든다.	×	잠깐 작동한 것과 전체 점검 완료·필연적 성공을 혼동했다.

A59 정답 ④

관련 개념: E06 · E07 · 문제로 돌아가기

근거 문장: ③ “수리를 마칠 때마다 오래 작동시켜 확인하는 사람이 되었다.”

판단: 이익을 서두르던 과거와 반복되는 현재의 선택을 비교한다.

선지	선택지 내용	진술 판단	해설
①	사진을 보고 눈가가 젖었다가 웃음이 번지므로 성격이 다른 방향으로 바뀐다.	×	그것은 한 장면의 심리 변화이다.
②	상인에게 맞는 부품을 얻어 작업 상황이 나아졌으므로 인물의 성향도 변한다.	×	외적 조건이 나아진 사실만으로 성격 변화를 알 수 없다.
③	오랫동안 수리하여 기술이 익숙해졌으므로 이익을 대하는 가치관도 달라진다.	×	기술의 숙련과 가치관 변화의 계기를 혼동했다.
④	이익을 서두르던 과거와 경험 뒤 확인·책임을 중시하는 선택이 대비된다.	○	과거 성향·변화 계기·지속적인 현재 행동이 제시된다.

A60 정답 ①

관련 개념: E06 · E08 · E09 · E10 · 문제로 돌아가기

근거 문장: ③ “손해를 보더라도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숨기지 않았다.”

판단: 지속된 가치관의 변화는 사진을 보며 느낀 순간 감정과 다르다.

선지	선택지 내용	진술 판단	해설
①	⑤의 감정 변화로 보아 ③의 변화도 순간적인 마음의 움직임에 가깝다.	×	부정 발문 정답. ③은 이후 반복된 점검과 책임 있는 태도로 가치관 변화를 보여 준다.
②	③은 이익을 먼저 생각하던 성향과 이후 확인을 중시하게 된 태도를 설명한다.	○	과거와 이후의 특성이 직접 설명된다.
③	④는 확인하지 못한 부분을 숨기지 않는 행동으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 준다.	○	발언과 수리비를 받지 않는 행동이 특성을 드러낸다.
④	⑤는 사진을 바라본 뒤 눈물과 웃음이 드러나는 행동으로 마음을 짐작하게 한다.	○	사진과 스승의 사정 속에서 심리 변화를 간접 제시한다.